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6월 2일(음력4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476호

환경운동 '새 판' 짜자

불교환경연대 표류… '중심부재' 따른 우려 커

전문가 · 재원부족, 성과 사장 위기

"비정부 · 비종단 기구로 정착돼야"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축이었던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화성 용주사 택지개발 등 크고 작은 환경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과 함께 불교환경운동 정책 생산과 활동을 주도해 왔던 불교환경연대의 표류는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불교환경연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실무 활동가들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발족부터 사무처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던 이들의 공백이 커진데다, 조직을 다시 이끌고나갈 인재들을 선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불교환경연합(가) 창립준비위원회 실무위원 워크숍에서 불교환경연대의 한 실무자는 '불교환경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제를 통해 "출 · 재가를 불문한 전문 활동가의 절대적 부족과 재정적 뒷받침 부재가 불교환경연합 출범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불교환경연합은 '비정부기구'이자 '비종단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불교환경운동단체를 모색하면서 발표한 이 같은 주장에서 북한산 저지 운동 과정 중 전문활동가 부족과 재정적 뒷받침 부재가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계종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으로도 읽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소수 명망가 중심의 운동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교환경연대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내부 구성원간의 시각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다.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실무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았다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선이 많다. 이와 맞물려 불교환경운동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이론적 실무적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 한 실무자는 "이제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산 저지 운동 과정에서의 성과물들을 추려내고 오류를 걸러내며 새로운 도약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사무국장은 "불교환경연대의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운동과 새만금 삼보일배 등으로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개발 반대 저지 운동 뿐 아니라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개인적 삶의 변화 운동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5월 26일 남북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법어를 내리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기뻐라, 진리의 법왕 오셨네

불기 2548년 봉축법요식 남북사찰 동시봉행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6일 남한 서울 조계사와 북한 평양 광법사를 비롯한 모든 남북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요식에 참석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새들은 일초일목(一草一木)의 진여(眞如)를 노래하고 꾀꼬리는 만물(萬物)이 지닌 반야(般若)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모든 생명이 진리(眞理)의 법왕(法王)으로 태어나는 날입니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봉축위원장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계의 평화와 우리들 삶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기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남북공동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피력으로 북한 용천 피해 대중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했다.

특히 이번 법요식에선 여성장애인인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이 발원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법요식에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 리빈 중국대사 등 5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법요식에서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제1회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5면

남동우 기자

노 대통령 봉축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 메시지에서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불교정신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가르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부처님오신날 사면 · 가석방

모범수형자 등 1,489명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징계 공무원 283명에 대해 특별사면 · 복권이 실시됐다. 또 모범 수형자 1,137명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모두 1,489명을 5월 26일 특별사면 · 복권 · 가석방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윤규 현대아산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순호 설악동지회장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대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금주 20면 발행

현대불교 구독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禪도 'Seon' 仙도 'Seon'

불교계 사용 영문표기 … 혼돈 우려

'Seon'은 '禪'과 '仙' 중 어느 것을 표기한 것일까? '명상편의점' '명상아루이 선' 등의 선(仙)명상센터가 '仙'을 'Seon'으로 표기, 국내불교계에서 통용되는 선(禪)의 영문 표기법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들 명상센터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선(仙)'을 Seon으로 표기하고, 관광공사 등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프로그램에서 선(仙)문화를 Seon으로 브랜드화하고 있다.

그러나 Seon은 한국불교계에서 일본의 선(Zen)과 구분지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禪)의 영문표기다. 조계종 역시 정부의 로마자표기법에 근거해 Sun, Son 등으로 원칙없이 통용되던 용어를 2000년 통일, 한국의 선불교를 'Seon'으로 표기해왔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동봉스님의 모친 초계유인 정귀례(청련화) 불자님이 지난 2004년 5월22일 새벽3시경 우리절에서 83세를 일기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청련화불자님은 우리절이 창건되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셨으며 작고 당일 새벽 침대모서리에 걸터앉은 채 좌탈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절에서 다음과 같이 재를 올립니다. 아울러 상례에 마음 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초 재	5월 26일 10시-14시	우리절
이 재	6월 3일 (목요일)	우리절
삼 재	6월 10일 〃	우리절
사 재	6월 17일 〃	우리절
오 재	6월 24일 〃	우리절
육 재	7월 1일 〃	우리절
막 재	7월 9일 (금요일)	우리절
백 재	8월 29일 (일요일)	우리절

우리절 종무실 합장

지장경을 읽읍시다
오는 6월 2일(음력 4월 15일) 수요일
하안거 결제일을 맞이하여 우리절에서는
[지장경독송회]를 결성하고 그 첫 기도를 봉행합니다.
목요대비주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봉행하며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 전체를 독송합니다. 물론 참석하신
분들은 부처님전에 낱낱이 축원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동봉스님이 번역하고
편집한 <<일원곡>> 제10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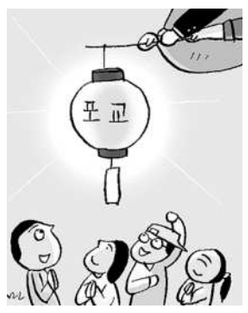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숙제 많은 청년 포교

청년불교에 적색등이 켜졌다.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위기를 맞았다. 2002년 12월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 후보가 단 한명도 등록하지 않아 비상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일을 연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현상은 대불련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놀랍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청년회가 실시한 '청년불자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 1996년 284개에 이르던 대불청 지회 수가 2001년 124개로 절반이상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불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9.4%로 가장 많아 96년 30세 이하 회원이 70.7%에 이르던 것에 비하면 5년 동안 신입회원 입회가 저조하여 청년 불자들의 연령층이 노령화됐고, 인원의 감소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어린이 포교에서도 전국의 유치원 8,292곳 중 불교계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265곳으로 3.2%에 불과해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어린이 포교시스템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식·제도·인프라 총체적 변화 필요
청년단체 의욕과 신념 확고해야

반면 타종교에서는 청년선교에 사목과 종단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종교의 미래가 청년층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도 청년포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종단과 각 사찰이 청년포교에 인색하게 대처하고 있기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과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고 더 큰 것은 청년단체의 자구책 마련이다. 청년 불자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스스로의 조직체를 우리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굳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

둘째, 불교계 각 종단과 교구본사별 예산에 10%이상을 청년불자 포교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또 범불교적으로 청년불자포교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에 유치원 개원, 청년회확대, 대불련지회장립 등의 목표를 설정,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스님은 일정기간(3~5년) 유치원 또는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대불련, 대불청 산하 지회단위 단체 상임지도 법사 활동실적을 필수로 하는 종단 내 중요직책(주지, 3직, 총무원, 간부 등) 임명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불교아카데미(가칭)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가불자를 유급포교사로 임용하여 교구본사단위 또는 행정구역단위로 전국에 150명 이상 배치하여 청년불자 포교에 전념토록 하여야한다.

청년포교는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다. 이 때문에 불교계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 성기태(충주대학교 총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고대에서 중세까지 조계종史 한눈에

'조계종사-고·중세편' 완간…강원등에 보급

조계종의 성립과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계종사-고 · 중세편>가 5월 25일 완간됐다. 2001년 12월 <조계종사-근 · 현대편>을 펴낸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조계종사-고 · 중세편>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대적 구분에 따라 불교의 변화와 흐름을 담았다. 내용은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발전 △통일신라시대 선의 도래와 종조 도의국사에 의한 조계종 성립 △고려시대 조계종의 발전과 사상적 특성 △조선시대 조계종의 시련과 극복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종단의 첫 공식 역사교재인 <조계종사>를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전문강원과 사찰, 신도회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계종사를 정규과목으로 정해 놓고도 종단차원의 정식교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던 승려 전문교육기관과 신도교육기관에는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사> 간행을 담당한 조계종사 편찬위원회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던 도의국사(道義國師) 이전의 한국불교사에 대한 규명과 조계종 법통 정립문제, 중천조(重闡祖)로서의 위상문제 등을 중심으로 종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계종사 고 · 중세편>의 연구 및 집필은 김상현, 종호 스님, 효탄 스님, 승원 스님, 김상영, 조범환, 차차석, 최연식, 황인규, 한상길, 김방용, 김용태 등 12명이 맡았다.

조용수 기자

불교 114 이제 '불통'

인력·시스템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

사찰 및 불교단체의 연락처 및 각종 불교관련 정보를 안내해 온 '불교114 안내서비스(이하 불교114)'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최근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다.

95년부터 불교114를 운영해왔던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114가 상담전문기관 사업으로서 성격이 맞지 않고, 전담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 · 고령층 이용자들과 오지 주민 등의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이후 문의전화는 총무원 총무부와 포교원 신행정보센터 등 유관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조동선림' 법인 설립 대표 학봉 스님

한국조동종 총본산이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설립(허가 2004-3호)을 5월 26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조동선림은 앞으로 서울 효창동 원효사를 중심으로 △조동선과 선학의 연구개발 △불교사상의 포교와 원리 연구 △국내외 불교 학술교류 △조동선 학서 출판 및 정기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중앙기관장 임명 원융종, 승정원장 등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최근 서울 구로동 원융사에서 승정원장, 문화원장 등 중앙종무기관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승정원장 성견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체의 스님, 문화원장 체관 스님, 포교원장 벽봉 스님, 규정원장 정관 스님, 교육원장 화담 스님 등이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박봉영 기자

강하게… 투명하게…

태고종, 종도대표가 총무원감사 등 개혁 '시동'

태고종 총무원이 종도들이 뽑은 대표로부터 종단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직접 받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또 이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이 강력한 종권을 행사하는 등 종무행정 집행구조를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6월 중순께 열리는 중앙종회에 앞서 종단 산하 19개 시 · 도교구에서 각각 1명씩 뽑은 종도대표들이 참여하는 회계 및 종정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번 절차를 거쳐 총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종단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최근 밝혔다. 종회의원이 아닌 별도의 종도대표들이 종단 운영실태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감사는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수회관 불사와 동방대학원대학의 개교를 앞둔 시점에서 종도간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단내 팽배해 있는 총무원에 대한 불신을 털고 투명한 종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총무원의 강한 의지로 분석된다. 태고종은 조계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종단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종단 구성원의 결속력이 약하고 총무원 행정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없이 제기됐었다.

"화합·신뢰회복 · 행정력 강화"
분담금 미·체납엔 기본권 제한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올 하반기부터는 종무행정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종도와 사찰에 대해서는 종헌 · 종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종단결속력 저해요인으로 꼽혀온 분담금 미납 또는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도 각종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력히 취할 방침이다.

이는 제2종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종단안팎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종권 행사를 통해 종단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운산 스님은 "이제는 사찰과 종도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종헌 · 종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 재정 확충을 위해 공사찰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총무원 직영사찰을 점차 늘려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인천 용궁사, 완주 봉서사 등 직영사찰의 재정운용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운산 스님은 향후 종단운영 방향에 대해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종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서별 전문행정력 강화, 안정적인 재정운용 등에 맞춰 불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계 노인요양시설 참선·다도 등 꼭 해야"

문화공간 서비스 다양해야
권경임씨 '불교와 문화'서 주장

'불교계 노인요양시설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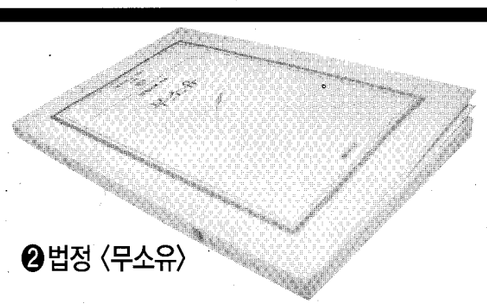
종교사회복지포럼 권경임 회장은 격월간 <불교와 문화> 5 · 6월호에 기고한 '불교계에도 현대적인 요양시설이 필요하다'에서 참선, 다도, 요가, 선체조 등 불교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이를 위해 △자체 법당 운영 △불교계 인 · 물적 자원 연계방안 모색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체계적 관리 △지역단체와 교구본사의 협력관계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특히 노인들의 소득 정도와 생활수준에 따라 불교계 노인시설 운영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료시설 위주의 노인시설 이외에도 중상층 이상을 겨냥한 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문화공간을 배치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집호에서 중앙승가대학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무료 · 실비 · 유료 노인시설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논문에서 최신식 시설, 전문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이 고루 갖춰져야만 이상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단차원의 노인복지시설 정보와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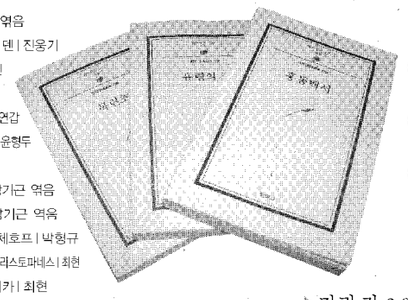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❷법정 〈무소유〉

1 · 수필 피천득
3 바다의 침묵(외) 베르코르 조규철·이정림
4 살며 생각하며 미우라 아야코 | 진웅기
5 오, 고독이여 F.니체 | 최혁순
6 어린 왕자 A.생 텍쥐페리 | 이정림
7 톨스토이 인생론 L.톨스토이 | 박형규
8 이 조용한 시간에 김우종
9 시지프의 신화 A.카뮈 | 이정림
10 목마른 계절 전혜린
11 젊은이여 인생을… A.모루아 | 방곤
12 채근담 홍자성 | 최현
13 무진기행 김승옥
14 공자의 생애 최현 엮음
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L.린서 | 곽복록
16 김소월 시집 김소월
17 장자 장자 | 허세욱
18 예언자 K.지브란 | 유제하
19 윤동주 시집 윤동주
20 명정 40년 변영로
21 산사에 심은 뜻은 이청담
22 날개 이상
2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4 애정은 기도처럼 이영도
25 이브의 천형 김남조
26 탈무드 M.토케이어 | 정진태
27 노자도덕경 노자 | 황병국
28 길매기의 꿈 R.바크 | 김진욱
29 우정론 A.보나르 | 이정림
30 명상록 M.아우렐리우스 | 최현
31 젊은 여성을 위한 인생론 P.벅 | 김진욱
32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33 조병화 시집 조병화
34 느티의 일월 모윤숙
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D.H.로렌스 | 이성호
36 박인환 시집 박인환
37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38 창문 김태길
39 방랑 H.헤세 | 홍경호
40 손자병법 손무 | 황병국
41 소설 · 알렉산드리아 이병주
42 전락 A.카뮈 | 이정림
43 사노라면 잊을 날이 윤형두
44 김삿갓 시집 김병연 | 황병국
45 소크라테스의 변명(외) 플라톤 | 최현
46 서정주 시집 서정주
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L.톨스토이 | 김진욱
48 불가능은 없다 R.슐러 | 박호순
49 바다의 선물 A.린드버그 | 신상웅
50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C.힐티 | 홍경호
51 딸깍발이 이희승
52 몽테뉴 수상록 M.몽테뉴 | 손석린
53 박재삼 시집 박재삼
54 노인과 바다 E.헤밍웨이 | 김회진
55 향연 · 뤼시스 플라톤 | 최현
5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R.릴케 | 홍경호
57 피천득 시집 피천득
58 아버지의 뒷모습(외) 주자청(외) | 허세욱(외)
59 현대의 신 N.쿠치키(편) | 진철승
60 별·마지막 수업 A.도데 | 정봉구
61 인생의 선용 J.러보크 | 한영환
62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 | 이정림
63 이동주 시집 이동주
64 고독한 산보자의 꿈 J.루소 | 연기용
65 파이돈 플라톤 | 최현
66 백장미의 수기 I.숄 | 홍경호
67 소년 시절 H.헤세 | 홍경호
68 어떤 사람이기에 김동길
69 가난한 밤의 산책 C.힐티 | 송영택
70 근원수필 김용준
71 이방인 A.카뮈 | 이정림
72 롱펠로 시집 H.롱펠로 | 윤삼하
73 명사십리 한용운
74 왼손잡이 여인 P.한트케 | 홍경호
75 시인의 반항 H.D.소로 | 황문수
76 민중조선사 전석담
77 동문서답 조지훈
78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 최현
79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80 문주반생기 양주동
81 신조선혁명론 박열 | 서석연
82 조선과 예술 야나기 무네요시 | 박재삼
83 중국혁명론 모택동(외) | 박광종 엮음
84 탈출기 최서해
85 바보네 가게 박연구
86 도왜실기 김구 | 엄항섭 엮음
87 슬픔이여 안녕 F.사강 | 이정림·방곤
88 공산당 선언 K.마르크스·F.엥겔스 | 서석연
89 조선문학사 이명선
90 권태 이상
91 내 마음속의 그들 한승헌
92 노동자강령 F.라살레 | 서석연
93 장씨 일가 유주현
94 백설부 김진섭
95 에코스파즘 A.토플러 | 김진욱
96 가난한 농민에게 바란다 N.레닌 | 이정일
97 고리키 단편선 M.고리키 | 김영국
98 러시아의 조선침략사 송정환
99 기재기이 신광한 | 박헌순
100 홍경래전 이명선
101 인간만사 새옹지마 리영희
1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03 모범경작생(외) 박영준
104 방랑이 깎던 노인 윤오영
105 찰스 램 수필선 C.램 | 양병석
106 구도자 고은
107 표해록 장한철 | 정병욱
108 월광곡 홍난파
109 무서록 이태준
110 나생문(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진웅기
111 해변의 시 김동석
112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논쟁 김진욱
113 파한집 이인로 | 이상보
114 역사소품 곽말약 | 김승일
115 체스·아내의 불안 S.츠바이크 | 오영옥
116 복덕방 이태준
117 실천론(외) 모택동 | 김승일
118 순오지 홍만종 | 전규태
119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M.베버 | 김진욱(외)
120 요재지이 포송령 | 진기환
121 한설야 단편선 한설야
122 쇼펜하우어 수상록 A.쇼펜하우어 | 최혁순
123 유태인의 성공법 M.토케이어 | 진웅기
124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125 인물 삼국지 모리야 히로시 | 김승일
126 한글 명심보감 장기근 옮김
127 조선문화사서설 모리스 쿠랑 | 김수경
128 역옹패설 이제현 | 이상보
129 문장강화 이태준
130 중용·대학 차주환
131 조선미술사연구 윤희순
132 옥중기 오스카 와일드 | 임헌영
133 유태인식 돈벌이 후지다 덴 | 지방훈
134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135 세계의 기적 박광순
136 이퇴계의 활인심방 정숙
137 카네기 처세술 데일 카네기 | 전민식
138 요로원야화기 김승일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푸슈킨 | 김영국
140 삼국지의 지혜 황의백 엮음
141 슬견설 이규보 | 장덕순
142 보리 한흑구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 | 윤삼하
144 이사도라 덩컨의 무용에세이 I.덩컨 | 최혁순
145 북학의 박제가 | 김승일
146 두뇌혁명 T.R.블랙슬리 | 최현
147 베이컨 수상록 베이컨 | 최혁순
148 동백꽃 김유정
149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A.베넷 | 이은순
150 평민한문학사 허경진
151 정선아리랑 김병하·김연갑 공편
152 독서요법 황의백 엮음
153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B.러셀 | 이자황
154 조선사 연구(草) 신채호
155 중국의 신화 장기근
156 무병장생 건강법 배기성 엮음
157 조선위인전 신채호
158 정감록비결 편집부 엮음
159 유태인 상술 후지다 덴 | 진웅기
160 동물농장 조지 오웰 | 김회진
161 신록 예찬 이양하
162 진도 아리랑 박병훈·김연갑
163 책이 좋아 책하고 사네 윤형두
164 속담에세이 박연구
165 중국의 신화(후편) 장기근 엮음
166 중국인의 에로스 장기근 역음
167 귀여운 여인(외) A.체호프 | 박형규
168 아리스토파네스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 | 최현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 | 최현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테렌티우스 | 최현
171 와투·코 고골리 | 김영국
172 카르멘 메리메 | 김진욱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 | 김진욱
174 페이티의 산문 페이터 | 이성호
175 이해 사회학의 카테고리 막스 베버 | 김진욱
176 러셀의 수상록 러셀 | 이성규
177 속악유희 최영년 | 황순구
178 권리를 위한 투쟁 R.V.예링 | 심윤종
179 돌과의 문답 이규보 | 장덕순
180 성황당(외) 정비석
181 양쯔강(외) 펄벅 | 김병걸
182 봄의 수상(외) 조지 기싱 | 이창배
183 아미엘 일기 아미엘 | 민희식
184 예언자의 집에서 토마스 만 | 박환덕
185 모자철학 가드너 | 이정배
186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오상순
187 무하선생 방랑기 김상용
188 어느 시인의 고백 릴케 | 송영택
189 한국의 멋 윤태림
190 자연과 인생 도쿠토미 로카 | 진웅기
191 태양의 계절 어시하라 신타로 | 고평국
192 애서광 이야기 구스타브 플로베르 | 이민정
193 명심보감의 명구 191편 이응백
194 아큐정전 루쉰 | 허세욱
195 촛불 신석정
196 인간제대 추식
197 고향산수 마해송
198 아랑의 정조 박종화
199 지사총 조선작



200 이어령 단편선 〈흥동백서〉
201 최인호 단편선 〈유명의 집〉
202 오정희 단편선 〈목련초〉

▶각권 값 2,800원 ▶계속 출간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www.bumwoosa.co.kr T.(02)717-2121 범우사

美 육조사 한국분원 개원 매주 일요일 참선법회



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 현웅 스님(사진)은 5월 23일 서울 가회동에 육조사 서울분원 육조사(선원장 현웅)를 개원했다.

도심 속의 선원으로 대중에게 문을 연 가회동 육조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좌선, 법문 및 질문과 답변 등으로 정기 참선법회를 갖는다. 현웅 스님은 <육조단경><선문촬요><서장><진심직설><신심명> 등의 선어록도 강설하며 근기에 맞게 출재가 수행자를 제접할 계획이다. 현웅 스님은 초심자는 물론 공부길이 막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수행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02)766-5291 김재경 기자

조선 궁녀가 한글 음역한 '법화경' 원효사서 발견

숭유억불 정책을 편 조선시대에 궁녀가 만든 한글 음역 <법화경>이 발견됐다.

의정부 원효사(주지 법송)에서 발견된 이 <법화경>은 조선 궁녀가 성불을 기원해 만든 '공덕경'이란 점에서 당시 불교의 영향력이 궁궐에도 퍼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경전이 한글로 음역돼 있어 당대의 한글 표음법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가치도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화경>은 닥종이에 먹으로 글씨를 쓰고, 녹색 비단 표지를 씌운 경전으로 전체 2권 분량이다. 오유진 기자

대불어 지도자 연수 6월12~13일 속리산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6월 12~13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37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지도자 5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도교사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특별법문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초심자반, 어린이와 함께 하는 인형극, 놀이속의 과학,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불교학교를 위한 레크레이션 등의 과정으로 어린이 지도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교구교재에 부처님을 마음을 담자'는 특강을 마련된다. (051)864-4570 부산=천미희 기자

동국大 불교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응용불교학과 등 6개학과…조계종 정부에 지원요청

동국대가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보광)은 불교계가 필요로하는 실무중심의 전문인력양성과 이론중심의 불교학자양성을 위해 심도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년전부터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왔었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현재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6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가시책으로 권장해왔던 고도 전문인력 양성분야로 의학, 법률, 통역, 경영, 국제통상, 미디어 등으로만 한정해 놓고 있어 불교학 등과 관련한 전문대학원의 설립 허가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될 불교전문대학원은 모두 6개 학과로 ▲응용불교학과(30명) ▲불교복지학과(8명) ▲국제포교역경학과 ▲장례문화학과 ▲문화재콘텐츠학과 ▲한국전통문화학과(각7명) 등 실용불교학이 중심이어서, 교육부의 전문대학원 설립명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동국대 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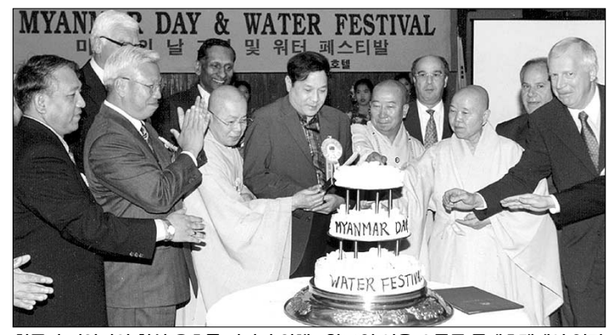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도 동국대의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동국대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동국대가 추진중인 불교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해 타종교와 비슷한 수준의 불교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갖춘 전문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불교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문학이나 철학박사 학위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를 맡고 있는 불교대학원 김대욱 과장도 "김영삼 정부 이후 기독교계열의 신학전문대학원들이 31곳이나 설립됐지만 불교계에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 유일하다"며 종교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설립 허가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대학원 제도는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실무중심의 전문대학원, 평생교육개념의 특수대학원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특수대학원 형태인 동국대 불교대학원은 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설립될 전문대학원에서는 고도의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학부 전공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불교대학원장 보광스님은 "불교계가 필요한 인력은 교학체계와 사회적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 성취되기를 모든 불교인들이 바라고 있다"며 2005학년도 전문대학원 설립의지를 밝혔다. 불교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교육부 허가 여부는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한국과 미얀마의 친선 우호를 다지기 위해 4월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얀마의 날' 행사 모습.

미얀마에 불교기술대학 들어선다

한-미얀마교류협, 내년 초파일 건립키로

미얀마의 수도 양군에 불교기술종합대학이 들어선다.

미얀마와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 미얀마교류친선협회(공동회장 홍파 · 목탁)는 미얀마정부와 駐미얀마 한국대사관의 지원에 힘입어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양군시(市) 동부지역 신시가지에 '기술교육종합대학(비인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2001년부터 건립을 준비해 온 불교기술학교 건립은 최근 미얀마정부로부터 1만여평의 부지를 제공받음으로써 활기를 띠게 됐다. 4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얀마의 날' 행사에서도 미얀마 상공회의소와 미얀마 · 한국친선협회(회장 우킨마우)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앞서 2월에는 '미얀마 · 한국친선협회'와 경제 · 종교 · 문화 · 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친선협력 및 교류를 위한 미얀마의 조인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 · 미얀마교류친선협회는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 법당 1개동과 교육 · 숙소동 2동 등 연면적 1천5백여평 규모로 기술교육종합대학을 건립한다.

기술교육종합대학에서는 극빈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차 운전 · 정비, 봉제, 미용, 양재 등 각종 기술교육과 한국 · 일본어 어학교육이 실시된다.

목탁 스님(미얀마 명예홍보대사)은 "불교형제국인 미얀마에 한국불교의 정성과 온정이 전해져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생활 속 마음공부의 장 열린다

중앙신도회, 하안거 백일법문 논강 진행

하안거 기간을 맞아 재가불자들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6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보름에 한번씩 총8회에 걸쳐 조계사 극락전에서 진행하는 '재가불자 하안거 <백일법문> 논강'이 바로 그것. 이번 논강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주교재로 △생활인의 마음 공부법(6월 3일)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의(15일) △대중토론-불교란 무엇인가(29일) △중도란 무엇인가(7월 13일) △마음의 연구(27일) △선사상에 대하여(8월 12일) △선이란 무엇인가(24일) △종합수련회(9월 11~12일)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제와 지정논평자로는 원택스님(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신희섭 박사 등이 나선다.(02)733-7277 김은경 기자



참석자들이 초의 선사 동상에 헌다를 하고 있다. 사진=여수령 기자

초의 선사 탄생기념 문화제 열려

조선 후기 대선사이자 '다성(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 선사(1786~1866) 탄생 218주년을 기념하는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가 5월 22~23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열렸다.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용운)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서삼석 무안군수와 (사)예명원 손민영 이사장, 고세연차가 고세연 이사장을 비롯한 1만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길놀이와 국악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진 23일에는 초의 선사 탄생지 경내의 연못 초의지(艸衣池)와 초의지 안에 마련된 용호백로정(容湖白鷺亭) 개장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초의 선사 헌다의식과 '초의 등(燈)' 밝히기, 찻잔 및 도자기 만들기, 차떡만들기, 제다시연 등의 참여행사와 어린이 행다시연, 중국과 대만 다법시연, 초의 선사 괘불봉안, 차상보 전시회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적은 찻잔으로 초의 선사에게 헌다를 하는 '천인헌다제'에는 차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세미나에서는 허흥식(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한국 불교에서 초의 선사의 위상'을, 배종민(전남대) 교수가 '초의 선사의 예술세계'를 용운 스님이 '초의 스님의 동다송에 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무안=여수령 기자

문화재 도난 잇따라

5개월간 14점 사라져…대책마련 시급

최근 사찰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4점의 사찰 소장문화재가 도난당했다. 이 중에는 지방문화재도 포함돼 있어 사찰 소장 비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에 대한 도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월 13일 새벽 제천 정방사에서는 3점의 성보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4월 2일 고창 용화사에서는 지장보살좌상 1점이 도난당했고, 3월 22일 상주 득수리에서는 석탑 옥개석 3점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고창 문수사에서는 진광대왕상 · 오관대왕상 등 성보문화재 6점을, 경북 경주 금정사에서는 지장탱화 1점, 영주 유전리에서도 미륵불상 1구 등을 각각 도난당했다. 오유진 기자

목탁소리

초파일과 여성장애인

5월 26일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거룩한 법요식에서 '여성'이, 그것도 '장애인'문인을 대표해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이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발원문을 낭독한 것이다. 방 회장은 여러 큰 스님들이 있는 단상에서 발원문을 낭독했다. 여성차별이 잔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온 불교계 현실에 비춰보면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선천성 소아마비 장애인인 방 회장은 1981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국내 유일의 장애인 문학 계간지 <솟대문학>을 탄생시키는 등 불자로서 장애우들의 등대지기가 돼 왔다.

발원문 낭독 소감을 묻자 방 회장은 "불교계의 의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보다 사회복지 이념이 풍부한 불교. 그러나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불교계. 이같은 변화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근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에 대한 종단적인 '나눔'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동우 기자

빙의 영가와의 대화를 통한 영치유법

「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할 수 있습니다.

전생상담 과정은 최면상태에서 떠올린 기억들이 실제전생이든 심리적 갈등의 상징이던 그 사실성 여부보다는 잠재의식속에 내재되어있는 전생의 기억속에서 내담자가 일상생활속에서 겪고있는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해결 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법의 효과는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속에서 방황하는 내담자에게 최면전생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삶의 재반 문제들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줌으로로서 보다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육내용

1.최면이론 및 실기 : 최면개론,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기법, 자율훈련법 등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기법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통찰시키고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세지를 설계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킨다.
5.빙의령 치유 기법 : 빙의령 확인법, 영가와의 대화기법, 천도확인법, 악령제압법, 제 삼자를 통한 원격 빙의 확인 및 제거법 등 빙의된 영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파악, 해원과정,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자문함.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 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제주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 중략 -

00사 00 합장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6월 14일 /21일 /28일 /7월 5일 /12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출장강의 가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大野 임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만신창이 된 미륵산

케이블카 이어 고압 송전탑
효심사 인근 수행 · 환경 위협
신학 스님 · 주민 이전 요구

미륵산 케이블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영시가 또 다시 고압선 송전철탑 공사로 인해 효심사(주지 신학)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승방 마을. 마을 중심부에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 송전 철탑이 마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마을 주민들은 당초 한전이 마을 주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마을 중심에 112m 높이의 고압 송전탑이 세워져 생존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불사를 진행 중인 효심사 주지 신학 스님은 "지장전과 송전탑과의 직선거리가 80m도 채 안되며 건립 예정인 대웅전과는 30~40m 인근이어서 수행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도 "한전은 송전철탑이 마을에서 보면 꼭대기정도만 보이고, 장소도 다른 곳이라고 설명했었다"며 "공기업이 마을 주민들을 기만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고성-거제 송전철탑 공사현장은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고압 송전탑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특히 똑같은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인근 창포마을과 지도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주민 동의를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철탑예정지가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고란초 서식지라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의견에 따라 철탑 설치 장소가 변경된 것과는 달리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5월 11일, 신학 스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창원 전력관리센터를 항의 방문하고 송전탑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창원 전력관리센터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는 것은 실수지만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으므로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학 스님과 마을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전을 위해 인근 내포마을 주민들은 물론 시내에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전이 송전탑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투쟁은 물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이전을 위한 법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500년전 藝魂 영원히 기억되리

일본서 '조선도공 추모다례' 열려
지난해 8월 송광사 추모재 일환



500년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조선도공 천도추모다례'가 5월 19~20일 일본 사가현 이마리(伊万里)시에서 열렸다.(사진) 현봉 스님(송광사 전 주지)을 단장으로 한 조선도공추모제 봉행위원회는 20일 이마리시에 자리한 조선도공 무연탑에서 천도재를 올리고 일본 도예발전에 공헌한 도공들의 뜻을 기렸다.

송광사 스님들과 국내 도예인, 일본 현지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천도재에서 현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무연탑은 임진, 정유재란 때 일본 가라츠, 이마리아가노, 사츠마, 하기 등지로 끌려간 880여명의 조선 도공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며 "지난해 8월 송광사에서 봉행한 '조선도공을 위한 천도추모제' 일환으로 이번에 일본 현지에서 조선도공을 위한 천도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원홍 한국차문화운동연합 고문은 추도사에서 "조선 도공들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창조적인 조선도공의 예혼(藝魂)을 일본땅에 심었다"며 "헌다례를 통해 양국의 우정이 깊어지고 조선도공들의 뜻이 영원히 기억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에 앞서 추모재 봉행위원회는 19일 일본 아리따마찌(유전촌) 도산신사에서 이삼평 13대 손 강삼병위(84)씨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도공 이참평 추모다례'를 올렸다. 이준엽 기자

6월 10일 도롱뇽 승소기원 음악회

3종교 여성성직자 '사랑의 울림'

6월 14일 부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다시 열리는 도롱뇽 재판을 앞두고 지율 스님과 천성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원사, 천주교, 원불교 여성 성직자들이 주관하는 '도롱뇽 소송 승소를 위한 환경음악회'를 개최한다.

10일 오후 7시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수녀, 정녀, 스님들이 종교를 초월, 환경과 생명 사랑의 울림을 전하게 된다.

한편 공사 방해로 고소를 당한 지율 스님은 여러 차례의 소환에 불응, 강제 구인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아직 천성산 터널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5월 23일, 마산 YMCA 초등학생들이 지율 스님을 방문(사진) , 노래를 불러 주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보림사 만인만발 무차공양

주먹밥 1만5천개, 떡 8천개 준비

5월 23일 대구두류야구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옥포 보림사(주지 선주)신도 100여명이 주먹밥 15,000개를 준비하고, 관오사(주지 지도)신도와 불교사회복지회 햇빛촌 떡방 사업단이 떡 8000개를 준비해 공양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옥포 보림사 주지 선주 스님과 신도들은 만인만발 무차 공양을 위해 3일전부터 준비를 했으며, 주먹밥은 23일 당일 새벽 4시부터 직접 만들었다. 또 불교사회복지회 대구남구 노인인력기관에서 운영하는 햇빛촌 떡방 사업단 남이주 할머니(62세)를 비롯한 4명의 할머니들이 손떡 사업단 11명 할머니들과 관오사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꼬박 24시간의 공을 들여 떡 8000개를 만들어 보시했다.

쌀 10가마, 재료준비에만 3일이 걸렸다는 떡방 사업단 최지영 사회복지사는 "할머니들이 떡을 제시간에 다 만들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노래도 부르며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뜻깊게 회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삼광사, 효행상 시상 및 경로잔치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5월 24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삼광효생상 시상 및 제 14회 삼광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삼광사 주지 도원, 한나라당 김병오 국회의원, 김형대 삼광사 신도회장을 비롯 부산시 전역의 어르신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지영, 손옥임, 서석락, 김옥이, 홍춘자 씨 등이 효행상을 수상했다.

효행상 시상식에 이어 열린 경로잔치에서는 삼광사 바라무회의 천수바라무, 초대가수 박수정, 최진출 씨의 노래, 각설이타령, 오병수 무형문화재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대구 읍내정보통신 중·고 수계식

"저희들은 진목 율사를 통해 새로운 몸 받았으니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이익보다 친구의 어려움을 쓰다듬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구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구 대구소년원)는 5월 22일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스님, 승가대학 학감 범천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감 진목 스님, 대구 · 경북 포교사단 권대자 고문 외 포교사와 8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관 2층 법당에서 진목 스님을 계사로 청소년 17명에게 수계식을 거행했다.

수계식을 마친 진목 스님은 '세상을 살아감에 유감스러운 것은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보다 포기하기 쉽다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학생들에게 "화초를 키워가듯 좋은 습관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읍내 정보통신중고등학교는 대구 경북 포교사단 소년원팀(1팀장 박정희, 2팀장 김난순)에서 매주 1회 법회를 진행해 왔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무일불교문학상에 박수영 씨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제정한 '제1회 무일 불교문학상'에서 일반부 박수영씨의 시 '면벽'과, 학생부에 이화여고 3년 전아리양의 소설 '길'이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국민의 정서함양과 불교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학상을 제정했으며, 6백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두 11편의 우수작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일반부 대상수상작 '면벽'은 수행 중에 일어나는 심리과정이 시적으로 잘 형상화 돼있으며, 학생부 대상작 '길'은 문장이 깔끔하며 구성이 잘 정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남해 관음사

가난 · 소외 극복하는 따뜻한 도량



관음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사찰 복지 불사를 의논 중이다. 뒷줄 왼쪽이 덕화 스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해. 요즘 남해 구두산에는 땅을 파헤치고 바위를 깨부수는 공사 소리가 요란하다. 2001년 창건된 관음사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복지사찰'로 탈바꿈하는 소리다.

푸른 남해 바다가 내다보이는 구두산의 한 자락에 노숙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복지관'이 들어서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법당, 요사채와 공양간. 이 전각들이 완성되면 관음사에는 6개의 건물을 보유하게 되고, 이중 3개 전각은 노숙자 보호 쉼터, 장애인 요양소, 독거노인 무료 숙식 시설로 이용된다.

어머니 뜻 받아 17년 '복지 불사'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캠페인

이를 위해 주지 덕화 스님, 월영, 감조, 무경 스님 등 관음사 사중 스님들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관음사 신도들과 이웃들도 불사기금으로 6천만 원을 마련했다. 신도 대부분이 절 인근 농부와 어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6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복지 불사를 하겠다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뜻에 감복한 남해군청은 절과 읍내를 연결하는 폭 6m 길이 4.5km 포장도로를 만들어주었다.

새롭게 전각들이 완공되면 관음사는 복지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기금은 절 인근 중 · 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렵게 다니는 불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종자돈으로 쓸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 생활을 보조하는 기금도 함께 마련한다.

주변에 농촌 마을이 많고 따라서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이 흔하다는 것을 고려해 마련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캠페인, 무료 1천일 영가천도법회도 관음사의 복지 마스터플랜 중 하나다.

덕화 스님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 불사'를 서원한 데는 어머니의 유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 덕화 스님 나이 열일곱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부처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병든 사람을 보살펴달라"는 말씀을 남겼다. 총지종 신도로서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좇으며 살았던 자신의 뜻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덕화 스님은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농사를 지으며 한 푼 두 푼 불사금을 모았다. 4000평 사찰 부지와 불사금을 마련하기까지 17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마침내 1998년 어머니의 뜻에 따라 법당을 세우는 불사가 시작됐다. 덕화 스님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제자로 귀의했다.

덕화 스님의 간절한 뜻을 전해들은 그 지역의 해운 거사는 몇 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며 받은 월급 전부를 덕화 스님에게 보시했다. 덕화 스님의 발심에 감동한 월영 감조 무경 스님도 불사에 동참했다. 덕화 스님은 "보여주는 불사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과 아름답게 어울리는 불사를 하고 싶다"며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들이 마음 놓고 쉬어가고, 납자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여법한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불해 海東 추 한국불교 해동종

종정 해운경우

원로원장 도운 총무원장 혜우 종회의장 대법
종회부의장 정관
사서실장 보각 포교원장 성재 종회부의장 도일
사정부장 천강 교육부장 법헌 총무국장 자은
교육국장 도승
총무부장 정일 사회부장 지원 사정국장 해월
재무부장 도봉 포교부장 도월 충주분원장 화도

한국불교 해동종 종도일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34-1 전화 043)853-2855 팩스 043)853-2855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입문편-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헷갈리지 않는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48페이지 / 정가 20,000원

도표 사진 등 최신 기획자료 4백여점을 집대성
佩鐵 向法 九星 紫白을 해설한 국내 최초의 결정판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내용과 표현방법을 단순화 해 흔한 스타일의 표현은 탈피했다.
부록 / 나만의 모순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재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페이지 / 정가 25,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식업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書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書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베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일 주 문



만일염불결사 법회서 법문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6월 6일 성남 정토사 극락전에서 열릴 만일염불결사회 창립 4주년 법회에서 법문한다. (031)723-9797



안양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 현성 스님은 5월 24일 안양교도소 강당에서 불자 재소자 합동 수계식을 봉행하고 노트북 1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취임식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5월 29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정기 월례발표회에서 제2대 보조사상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광동여고 수계법회
의정부시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5월 24일 광동여고 법당 자비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330여명이 참석한 '광동여고 합동수계식'을 봉행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
부산 혜원정사 주지 효명 스님은 6월 12일 오후 7시 혜원정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3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불교기초교리 강좌 개설
광주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초심불자를 위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6월 3일부터 3개월간 취백루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062)226-0107



우수 박물관인 · 문광부장관상
김천 직지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5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우수박물관인으로 선정, 문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군사령부 이동수송대 위문
성서불교대학 여래선원 주지 해선 스님은 5월 22일 경산 2군사령부 소속 이동수송교육대 군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군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17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류주형 회장은 6월 3일 오후6시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66차 정기이사회 겸 17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을 개최한다.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대한민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은 6월 12~13일 부산 범어사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및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제1회 불자대상 수상 황우석 교수 · 박세리 선수

"불자 도리 지키며 정진하겠습니다"



종정 법전 스님이 황우석 교수에게 불자대상을 주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제1회 불자대상을 수상한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51 · 법명 심산)와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27 · 법명 묘법). 황 교수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학술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공로로 조계종 종정 스님 상을, 박 선수는 미국 골프 명예의전당 가입 자격을 획득한 공로로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황 교수는 수상 소감을 묻자 "부처님이 내려준 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불자로서 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참선을 하고, 한달에 1번 강화 전등사에 가 400배를 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 자신의 학문분야와 윤회사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명윤리 틀 내에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선수 역시 부모님과 함께 독실한 불자며, 중, 고교 때 대회가 열리는 골프장 근처에 절이 있으면 반드시 들러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한다. 수상은 어머니인 김정숙(51 · 법명 무심행)씨가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판 대동여지도 15년 다리품으로 완성

사찰문화지도 제작 박성현 씨



박성현 소장이 사찰문화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사찰은 우리나라만이 간직하고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사찰과 그 주변 문화를 한 장의 지도로 알 수 있는 사찰문화지도는 주 5일제를 맞이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불자들에게 큰 활용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15년간 전국을 수십 차례 이상씩 누비며 사찰문화지도 만들기에 전념해 온 박성현 맵 디자인 연구소장(51)은 최근 무려 2만여장이 넘는 지도 작업을 끝내고 이렇게 말했다.

지도 제작이라곤 문외한이었던 박 소장이 이런 큰 계획을 실천에 옮긴 데는 계기가 있었다. 사업실패 후 잠시 지리산에 칩거해 기도 하며 지냈는데, 주변 암자와 사찰들이 너무 아름다워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산을 내려온 즉시 박 소장은 스케치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전국 산하를 돌아다녔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재정문제였습니다. 공사장 막일을 해서 돈이 조금 모이면 어김없이 답사를 다녔습니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사찰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길을 잃기도 했지요. 하지만 스케치북에 옮겨 놓고 나면 불교문화를 알리는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한없이 기뻤습니다."

박 소장은 외국인들도 사찰문화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본 지도도 함께 만들 생각이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맞춰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DB화 하고 있기도 하다.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도의 지도 작업을 완료한 박 소장은 요즘 충청도와 전라도 추가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불교판 대동여지도 제작을 위해서 말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다른 학문 연계 연구 불교학 지평 넓힐 것"

동국대 신임 불교문화연구원장 박경준 교수



"불교문화연구원의 기존 연구성과를 이어가면서, 불교학과 다른 학문을 연계하는 학제간 연구에도 주력할 생각입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좀더 개방적인 연구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에 취임한 박경준(동국대 불교학과 · 사진) 교수는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과 개방적인 연구원 운영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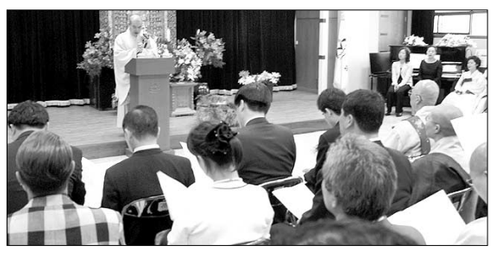
특히 연구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불교생태학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의 폭을 넓힐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5월 21일 농업생명분야에서의 불교생태학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세 번째 불교생태학 세미나 '희망의 생태학 길도 숲도 필요하다'를 개최했다.

박 교수는 "현재 불교생태학 연구는 다른 분야와의 유기적인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라며 "앞으로는 공과대학 등 각 단과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참여도 넓히고 세미나 횟수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불교생태학 연구성과를 토대로 '에코포럼(eco-forum)'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환경 · 생태 문제는 21세기의 화두"라며 "에코포럼에서는 동국대 안팎의 전문가들을 모아 이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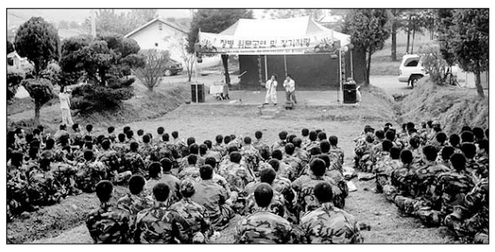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성북구사암련, 구민 위한 봉축대법회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회장 정수)와 성북구청불자회 '법륜회(회장 정후시)'는 5월 18일 '성북구민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보경사 주지 원공 스님,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포교사단 군4팀, 81연대 군장병 위문



조계종 포교사단 군포교분과(위원장 한연수) 군4팀은 5월 19일 육군 28사단 81연대 예하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열었다. 5백여 군장병이 참석한 이날 공연은 머루와 다래 등 불자연예인의 노래와 장병들의 장기자랑으로 진행됐다.

천중사, 성북구내 불우이웃 돕기



태고종 서울 정릉 천중사는 5월 24일 성북구 장안회관에서 지역 독거어르신 1백여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태고종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1사찰 1선행운동 실천 차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2가족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경기도 제2청사 공무원불자회 창립



경기도 제2청사 공무원불자회(회장 이근홍)는 5월 15일 의정부 제2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봉선사 조실 월운, 불자회 지도법사 불암사 주지 일면, 용현사 주지 성관, 봉선사 연수실장 송묵 스님 등 4백여 명이 동참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4년 6월 25일 ~ 8월 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4년 5월 20일 ~ 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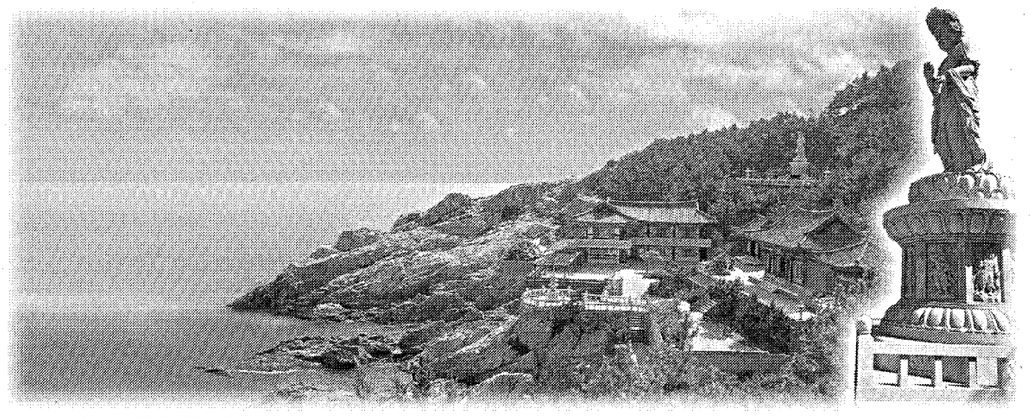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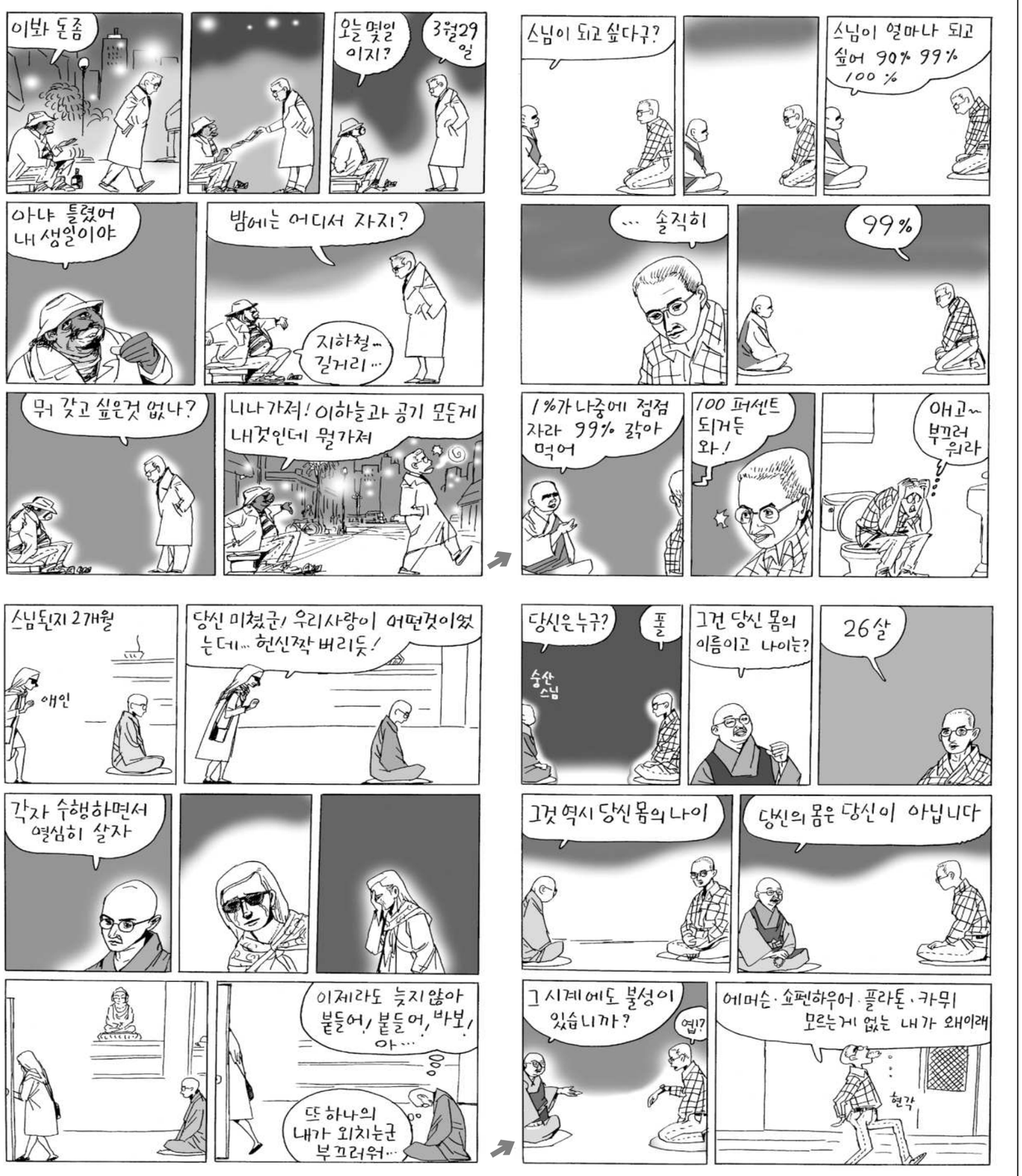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주장자따라…

㉑ 현각 스님의 발심

조태호



현각스님 : 1964년 미국 뉴저지의 천주교 집안에서 출생.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철학 공부할때 숭산스님의 법문을 듣고 1992년 한국에 와서 출가.



문수보살의 법문

문수·보현 보살이 구도여행의 처음과 끝

확고한 믿음이 보현행 성취의 큰 토대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현의 수행문에 들어가서 성취하는 법을 물으라며 찾아가기를 권하는 선지식은 문수보살이다. 그가 문수보살을 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문수사리가 가진 서원을 다른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은 가지지 못했다. 선남자여, 문수사리동자는 그 수행이 광대하고 그 서원이 그지없어서 모든 보살의 공덕 내기를 쉬지 아니한다.

선남자여, 문수사리는 항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의 스승이 되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성취하여 시방세계에 소문이 났으며, 모든 부처님 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법사가 되어 모든 여래가 찬탄하는 바이며, 깊은 지혜에 머물러 있어 모든 법을 사실대로 보고, 모든 해탈의 경계를 통달하고, 보현이 행하는 행을 끝까지 마치었다. …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문수사리에게 가야 하나니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라. 문수사리는 그대에게 모든 공덕을 말하리니,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선지식을 만나고 보살의 행을 듣고 해탈문에 들어가고 큰 원을 만족한 것은 모두 문수사리의 위덕과 신통의 힘인 것이다. 문수사리는 모든 곳에서 구경(究竟)까지 얻게 해준다."

선재동자가 처음에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나선 것은 문수보살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그 동안 많은 선지식을 만나 뵙고 법문을 들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여 이제 최후의 선지식인 보현보살만을 남겨 놓고 있는 마당에서 지나온 일백 일십 성을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최초의 선지식인 문수보살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재동자가 지금까지 만나 온 선지식들은 제각기 한 가지 씩의 해탈 법문을 해주었지만,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의 수행을 칭찬할 뿐 어떠한 특별한 법문을 설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최초에 문수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현행을 갖출 수 있는 도(道)를 구하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가라고만 할 뿐 특별한 법문을 설하지 않고 있는 데도 나타난다. 그리고 최후의 선지식인 보현보살 또한 광대한 자비행인 보현행에 대해서 말할 뿐 특별한 법문을 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구법여행의 시작을 열고 또한 마무리하는 보살이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보현의 훌륭한 행을 갖춤으로써 구법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선재동자의 모든 구법과정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앞의 경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문수사리보살은 항상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의 스승이 되어서 모든 곳에서 보살행을 구경(究竟)까지 얻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선재동자를 문수보살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미륵보살이 가르쳐준 대로 보문국(普門國)의 소마나 성(城)에 이르러 문수보살을 생각하며 두루 널리 찾아보려고 하였다. 이 때 문수보살은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일백 일십 유순이나 뻗쳐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만일 믿음의 뿌리(信根)를 여의었던들 마음이 용렬하고 후회하여 공 닦는 행을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물러나게 되며 한 선근에도 집착하고 조그만 공덕에도 만족한다 하여 교묘하게 행과 원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고 보호함도 받지 못하며, 여래의 생각하심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의 성품, 이러한 이치, 이러한 법문, 이러한 수행, 이러한 경계를 알지 못하고 두루 알음과 갖가지 알음과 근원까지 지극함과 분명하게 이해함과 들어감과 해탈함과 분별함과 중득함과 얻는 것을 모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문수사리는 이 법을 말하여 가르쳐서 통달하고 기쁘게 하며, 선재동자로 하여금 아승지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큰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여 보살의 그지없는 다라니, 원 삼매, 신통 지혜를 얻게 하고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였다가 선재를 도로 자기의 머무른 곳에 두고는 문수사리가 작용을 거두고 나타나지 않았다.

문수보살은 선재동자가 보현행을 성취하게 된 것은 결국 최초에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구도의 발심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발심이 온갖 수행을 성취케 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은 처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신심(信心)에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수보살의 법문은 선재동자가 이루는 공덕은 모두 문수보살의 힘이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믿음(信根)이 없으면 깨달음의 경계에 증입(證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티즌 교리문답

'기관목인(機關木人)'의 뜻은?

문 〈증도가〉 등 선어록에 나오는 '기관목인(機關木人)'이 무슨 뜻인가요? (ID '떡본김에')

답1 : 〈증도가〉에 '기관목인을 불러서 물어 보라(喚取機關木人問), 부처를 구하여 공 베풀면 조만간 이룬다 하리라(求佛施功早晩成)'는 문장이 보인다. 여기서 기관(機關)은 활동 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갖춘 기계이니 '기관목인'은 오온으로 화합하여 된 몸을 비유한 말이다. 공에 집착한 사람은 마치 인형이나 허수아비 같아서 도를 닦게 한들 어느 때에 피안에 이르겠는가 하는 뜻이다. (ID '촌동네')

답2 : '기관목인'이란 나무 인형 속에 들어가서 인형극 하듯이 목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증도가〉에서 '기관목인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곧 '나무 장승(木人)에게 물어보라. 나무 장승은 언제든지 대답하고 있고, 돌로 만든 여자(石女)는 언제든지 춤을 추고 있다'는 말이다. 곧 '참으로 나무 장승이 노래 부르고 돌 여자가 춤을 출 때 그 때가 불법을 완전히 성취한 때이다' 하는 말이다. 중생의 사량분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무정물인 나무 장승과 돌 여자처럼 영영 대무심(大無心)이 되어 비로소 진여의 무진묘용이 거기서 살아나게 된다. (ID '촌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㊺

교외별전(敎外別傳)- 5

진상·가상 따로 있나?

만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판단일뿐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란 곧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낸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法) 즉 다르마(dharma)라는 말의 뜻을 소개했고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의 개념도 소개하였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낸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대뜸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물체들이 모두 실상은 없는데 마치 정말 있는 듯이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또 이런 의문도 든다. 모든 것을 지어내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심전심(以心傳心) 즉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써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뒤의 의문은 다음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앞의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모든 것을 마음이 지어내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인가? 내 앞의 풍경, 내 앞의 물건들은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허깨비라고 치부해버릴 수가 없는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가 지어낸 가짜라는 말인가? 내가 앞에 펼쳐놓고 있는 이 신문이, 읽고 있는 이 글이, 이 책상이, 이 방이, 이 집이, 이 세상이 다 허깨비란 말인가?

불교 문헌에는 마치 그렇다고 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꿈의 비유가 그 한 예이다. 모든 것이 가환(假幻) 즉 허깨비라고 한다. 꿈속에서 겪는 것은 다 실제가 아닌데도 꿈속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 모두가 생생한 현실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물에 빠진 꿈을 꾸면서 금방 죽을 듯이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꿈을 꾸면서 펑펑 울기도 한다. 불교 문헌에는 중생이 무시이래(無始以來), 즉 시작도 없는 때부터 길고 긴 꿈에 빠져있다는 말도 많이 나온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허깨비요, 현실의 세계, 꿈밖의 세계는 따로 있다는 얘기인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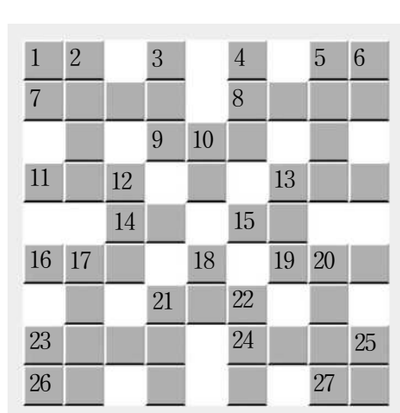
올챙이와 개구리의 비유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개구리가 아무리 뭍 밖의 세계 즉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해주어도 올챙이는 알아들을 수 없고 기껏해야 자기의 물속 세계 즉 중생 세계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오해)할 뿐이라는 얘기인데, 물속의 세계와는 별도로 뭍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듯한 비유다.

얼마 전에 큰 흥행을 거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그와 비슷한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 영화의 감독들이 〈금강경〉을 비롯해서 불교의 세계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매트릭스라고 일컫는 거대하고 치밀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연출되는 세계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 가상현실 밖에 별도로 진짜 현실이 따로 있고 실제 인물들이 가상현실의 힘과 싸우는 줄거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불교에서 허깨비 세상과 실제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꿈의 비유든 올챙이의 비유든 일단은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사실 그 자체의 진상 그대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아니라 아집과 탐욕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식과 판단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12면에

가로 1. 관아에서 내리던 처분 5.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7. 범어 'acintya'의 번역으로, 마음속으로 헤아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란 뜻 8.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이 바른 태도 9. 팔정도의 하나로, 바르게 생각함을 의미하는 말 11. 근본분열 당시 대중부와 대립하던 부파 13. 세친(世親)의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소의론전으로 하는 종파 14. 붉은 빛의 보석 15. 안거의 다른 말 16. '어머'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19. 쇠로 만든 짐배 21. 나관중의 장편역사소설 23.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 하는 설법 24.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음 26.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 27. 인두와 위의 사이에 있는 긴 관

세로 1. 부처님오신날 불상에 향물을 붓는 불사 2. 두 다리를 서로 꼬고 앉는 것 3. 우의정과 영의정 사이의 벼슬 4. 인공적으로 처리한 우유 5. 붓다고사(佛音)가 지은 아비담마 논서의 하나로, 팔리 상좌부의 견해를 집대성한 것 6.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 10. 경전의 내용을 옮겨 적음 12. 부처님 십대 제자 중 '설법제일'의 스님. 13. 땅속에 터널을 파고 부설한 철도 17. 신문·잡지 따위에서, 첫머리에 싣는 중요한 기사 18. 새로 나라를 세움 20.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21.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물의 본질적인 세 가지 특성 22.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 23. 큰 새우 25. 정도(正道)의 반대말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강화 선원사 황토방 전경.

'찜질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이 '특별한' 절을 찾고 있다. 수행 공간은 기본,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쉼터'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사찰로 몰려들고 있다. 황토방이 그렇고, 사찰 건강식 맛보기가 그렇다. 이에 따른 사찰의 변화시도도 다양하다. 단순히 쉬는 개념에서 '건강 증진'과 '레저스포츠' 등 최근 각광받는 여가생활패턴을 적극 도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 뜨고 있는 채식은 물론 PC방 무료운영, 당구대 등도 절에서 만날 수 있다. 사찰의 '조용한 변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찰을 찾아가 봤다.



여기 절집 맞아~

주5일근무제, 웰빙 바람에 사찰 '휴식' 공간으로 변신


5월19일 개원한 강화 선원사 황토방에서 불자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절집과 불가까가 만나면

불교계에서 처음 황토방을 개원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 6년 전부터 운영하던 비닐하우스 시설을 허물고, 황토방을 신축했다. 한의사의 자문을 얻어 30kg 소금 1천여 포대와 각종 한약재를 황토에 쏟아 넣었다. 또 170여 평 건물 곳곳에 100% 황토를 벽에 발랐다.

5월 19일, 선원사 황토방이 재개원되던 날. 성원 스님은 이 말부터 했다.

"종교가 중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화입니다. 사찰도 휴식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황토방을 만든 이유가 이렇습니다. 불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황토방에서 몸과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을 수만 있다면, 이곳이 바로 진정한 기도수행처가 아니겠습니까?"

강화 선원사 19일 황토방 개원
입소문 타 이곳 모르면 '간첩'

'사찰'과 '한증막'의 절묘한 만남. 반응은 이미 폭발적이었다. 평일에도 2백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입소문도 퍼져 강화지역은 물론 부산에까지 찾아와 한증막 마니아들 세계에서 이곳을 모르면 '간첩'으로 통한다.

"좋아요. 잔뜩 땀을 흘리다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번뇌를 녹이는데 이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는 쉬면서 기도하는 도량이에요." 이 지역주민 심건섭(75) 씨의 말이다.

현재 한증막 등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선원사, 월정사 강릉시 포교당 관음사 등 3~4곳 정도. 개설 문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무주 안국사, 나주 미륵사, 서울 봉원사 등이 한증막 개설을 추진 중이다. (032)933-8234

#친구야, 놀러가자 사찰로


PC방 · 탁구대 · 헬스기구 등을 마련해 놓은 거창 심우사.

거창 심우사 청소년 공간 마련
교사 상주, 공부 · 운동 지도 점검

채영(대성환경정보고 2)이의 방과 후 활동은 해인사 거창포교당 심우사(주지 심우)에서 시작된다. 채영이가 심우사를 찾는 이유. 무료 PC방과 탁구대, 당구대, 헬스기구 등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부방과 지도 교사 5명이 교대로 직접 공부도 지도해주니 금상첨화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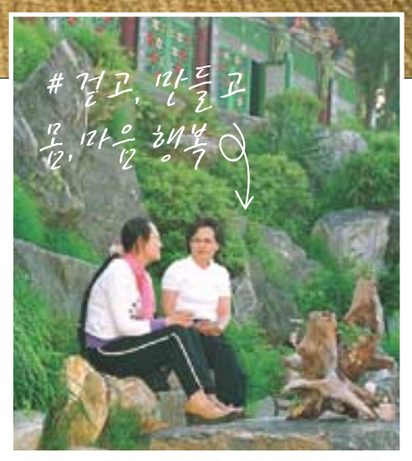
"절은 학교 자율학습보다 분위기가 조용해 공부도 잘 돼요. 공부하다가 몸이 피곤할 때 탁구 한 게임 치고 나면 마음까지 개운해져요." 채영이는 친구들과 탁구를 치고 나면 공부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일반 PC방에서 오락게임으로 허비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또 절에 와서 스님한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매일 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심우 스님은 친구처럼 아이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불교적 인생관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고충을 풀어주는 인생 상담자로서의 역할까지 하면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심우 스님의 청소년들을 향한 특별한 시설 투자와 관심덕분에 심우사는 언제나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초파일 등 다는 작업도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등줄도 치고 등도 달고 등표까지 붙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현재 심우사에는 지난 2000년부터 마련한 컴퓨터 17대를 갖춘 PC방, 탁구대, 당구대, 헬스기구, 농구대 등과 50명의 좌석을 갖춘 공부방까지 있다. 4년간 하나하나 마련하기 시작한 심우스님은 이제 동아리방을 열 생각이다. 마루바닥, 음향시설을 갖춘 동아리방 문을 열면 댄스, 보컬그룹, 사물놀이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심우사는 이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예산 확보를 마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055)944-2093

#걸고, 만들고 몸, 마음 행복


평택 수도사에서는 사찰음식을 만들고 장작패기, 진흙산책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수도사 대웅전 뜨락에서 쉬고 있는 불자들.

서울에 사는 회사원 이아무개(42) 씨.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듯이 주말이면 편안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 경기도로부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슬로우 푸드(Slow Food)' 체험장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를 찾았다.

평택 수도사 '슬로우 푸드' 준비
사찰음식만들기 등 체험 위주

토요일 오전 수도사를 찾은 이 씨 가족들. 우선 더덕장아찌, 민들레나물, 감자보리밥 등 각종 사찰음식으로 마련된 슬로우 푸드를 먹는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사찰음식 만들기, 장작패기, 다도 등을 체험해 본다.

다음날 오전 가족들은 사찰 인근 진흙 산책로를 맨발로 걸었다. 발바닥에 닿는 진흙을 느껴본다. 죽어있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흙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이런 체험이 올 9월경이면 가능해진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도사 내에 공간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은 "올 9월초 완공 예정인 50여 평의 체험장은 사찰음식 만들기, 발우공양, 행선 체험 등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682-3169.

글=천미희 · 김철우 · 남동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하는 중국여행 및 시찰순례)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세계의 붓다
마이클 조든 지음
전영택 옮김
궁리
2만3천원



자연석에 조각된 발우를 든 거대한 티베트 불상.



화강암에 조각된 스리랑카 갈비하라 석굴사원의 거대한 와불상(길이 14m).

온화·무뚝뚝·무념·매서움…

千의 얼굴 불상 따라 성지순례



미국 사진작가 스티븐 포가 자연과 합성한 불두모습. 이책의 표지사진이다.

한 평범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냈다. 그는 참된 고귀함을 얻었고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가 바로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영국 BBC 방송 등에서 작가와 방송인으로 활동한 마이클 조든이 지은 <세계의 붓다>는 불교미술을 따라 붓다의 행적을 좇고 세계 사원을 순례하며, 불교미술에 나타나는 상징과 유래를 밝힌 책이다. 특히 불교의 역사와 불교미술에 관해 총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설명돼 있어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하지만 이 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글보다도 2백여컷에 달하는 사진들이다. 인도 네팔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14개국의 사원을 찾아 불상과 탑, 석굴벽화 등 불교 조각과 건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렇다고 이 책을 시종일관 리드하고 있는 사진들이 사원이나 박물관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터줏대감(?)들만은 아니다. 거대한 암벽, 산꼭대기, 강가 절벽 등지에 하늘이나 나무와 어울려 있는 불상과 사원의 사진들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어 성지순례를 하고픈 유혹마저 빠져들게 한다.

그 유혹들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2001년 파괴하기 전 모습의 바미얀 입불상(3~5세기)이 있는가 하면, 둥근 중국인의 얼굴 모습을 한 중국 하남성의 용문석굴, 절벽 전면의 자연석에 조각된 발우를 든 거대한 티베트 불상 등 온화하다가도 무뚝뚝하고 매섭기도 한 천의 얼굴들이 원색의 사진으로 가득하다.

인도에서 일본까지 14개국 사원서 찍은 불교 조각 · 건축물 사진 200여컷 수록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기원전 6세기 중엽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기까지의 붓다의 행적을 좇아 의미를 되짚었다. 특히 이 장에서는 불상이 제작되지 않았던 초기의 불교미술에서부터 춤추는 싯다르타를 묘사한 자유분방한 현대 조각상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출생과 고행 그리고 깨달음과 열반의 과정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붓다가 태어난 인도부터 네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티베트,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까지 아시아를 가로질러 불교가 전래하고 발전한 과정을 추적한다. 그곳에서 만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비를 부르는 자세' 로 유명한 라오스의 불상 등은 눈여겨 볼 만하다. 비록 책 속이지만 이 밖의 불상들도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섬세해 저절로 두 손 모아 합장하고픈 환희심이 들게 만든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불상의 머리, 백호, 눈, 귀, 목, 손, 가사, 장신구, 앉은 자세, 대좌, 두광, 신광과 장식, 만다라 등 불상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세세히 짚고, 부록으로 용어 설명과 본문에 나온 가볼만한 곳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특히 중간중간에 경전과 선사들이 남긴 말씀을 배치해 놓았다. "모든 붓다가 열반의 궁전에 장엄하게 자리하신 것은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셨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이 불타는 집에 갇혀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탐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원효 스님의 말씀도 들어 있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 불교를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에 훑어보기에 적합한 대중적인 책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캐릭터마케팅 박소연 지음 | 소담 | 1만3천원



어릴 적 추억을 되돌아 볼 때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슴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만화영화 주인공들이다. 최근에 이러한 만화의 향수를 다시금 되새겨 주는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하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 또 마시마로, 뿌까 등 새로운 특징 있는 캐릭터를 창조해서 바로 상품과 서비스 산업의 마케팅에 사용한 '캐릭터' 성공사례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곤 한다.

바로 이러한 캐릭터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캐릭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니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니 하는 매스컴의 부추김도 어느 정도 원인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근래의 움직임에 대해 얼마 전에 발행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여대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하고 바른손에서 활동하다가 현재 바른손카드와 위즈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박

캐릭터 산업, 뜨는 이유가 있지

소연 대표는 이러한 최근의 캐릭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캐릭터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캐릭터마케팅>을 출간하였다. 캐릭터의 정의부터 시작해 국내외의 캐릭터 시장과 현황, 캐릭터 사업 및 캐릭터 개발사례, 그리고 캐릭터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캐릭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캐릭터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 및 캐릭터 제품의 생산조건과 마케팅 전략을 사실과 예시 중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캐릭터 마케팅 전문인으로 한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캐릭터의 정의를 다루는 캐릭터 이야기, 성공하는 캐릭터 디자인 비결 4가지, 캐릭터 마케팅에 대한 7가지 비결, 국내외에서 성공한 캐릭터 이야기, 인터넷과 사이버캐릭터시장의 관계, 무선인터넷과 연동되는 캐릭터 비즈니스 마케팅 제안을 통해 캐릭터비즈니스의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캐릭터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실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계약서', 부비와 난타를 샘플로 한 자세한 캐릭터 사용매뉴얼 등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캐릭터 업계의 종사자들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홍정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과장)

티벳 佛敎 성지순례
카일라쉬(수미산) 대탑사 24일 / 345만원
■ 5월 25일 - 출발 확정, 6월 23일, 7월 27일, 8월 3일
인천/성도-라사-장체-사가체-라체-사가-피망-다르첸-카일라스코라-구계왕국-마나사로버호수-피망-사가-라체-에베레스트BC-딩그리-니얄람-카트만두-방콕/인천

패키지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벳/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 6/3, 6/17, 7/15 ▸ 260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벳/네팔 12일
▸ 5/21, 6/18, 7/23, 7/30 ▸ 173만원
티벳/네팔/인도 23일
▸ 6/20, 7/4, 7/29 ▸ 239만원
티벳 전문 혜초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재밌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세요?
정운 스님에게 1분만 투자하세요.

수행자로 사는 보람과 기쁨, 스승과 도반들과의 따뜻한 인연 등이 정운 스님 특유의 맑고 정감 어린 문체에 실려 잔잔하게 표출된 이책을 읽노라면 문득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종교는 내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까 싶다."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중에서



국판 | 320면 | 9,000원 | 정운 스님 | 여시아문

정운 스님 보령 세원사 주지
시 집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달을 보는 섬> <또 다른 이름되어> <그대 그대 자신으로>
산문집 <사람의 향기> <아직도 그곳엔 희망이 있더라>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동인지 <길 없는 길을 가다> <이슬을 털며> 등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현대불교신문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커뮤니티 '1분이면 마음이 열려요'에 들어가시면 정운 스님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日 사상계의 두 기둥 불교를 말하다

묻고 답하기 형식의 깊이 있고 명쾌한 대담집
불교 화두로 철학 · 신학 · 과학 문제 파고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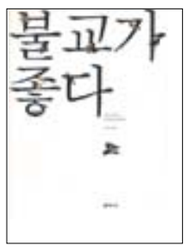

나카자와 신이치 주오대 교수.

일본 사상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불교'를 계기로 만났다.

한 사람은 일본 융 학파의 선구자이자 동양적 심리학을 주창한 가와이 하야오(77) 문화청 장관. 다른 한 사람은 종교학과 철학을 두루 넘나들며 '일본 제일의 인문학자'로 불리는 나카자와 신이치(54) 주오(中央)대 교수다.

지난해 일본 '아사히신문'의 기획대담으로 한 자리에 앉은 두 거장은 '불교'를 화두로 종교와 철학, 신화, 과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담을 정리해 내놓은 책의 제목이 곧 대담의 결론이기도 한 <불교가 좋다>이다.

하지만 대담집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언어'나 '그들만의 개념'이 난무하는 것은 아니다. 대담은 팔순에 가까운 가와이 장관이 '학생'이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교사'인 나카자와 교수가 쉬운 말로 불교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종교와 철학, 신화와 과학, 문명과 야생이라는 방대한 주제에 대한 나카자와 교수의 명쾌한 해설을 듣고 가와이 장관은 "불교의 본질에 대해 이 정도로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감탄했을 정도다. 대담 분위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대화체 문장도 한결책을 쉽게 읽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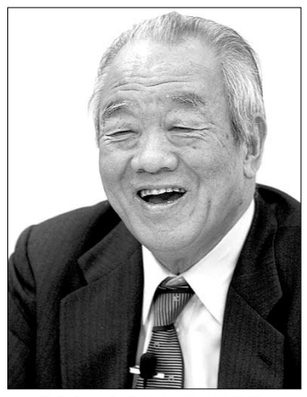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김옥희 옮김
동아시아 | 1만2천원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진단한 현대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으로 '불교'를 제시한다. 나카자와 교수는 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칭성'을 들며, 오늘날 이 '대칭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싯다르타가 열반에 들었을 때 제자들보다 많은 수의 동물들이 찾아와서 슬퍼하죠. 불교에서는 항상 이런 대칭 관계가 전면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떻게 하면 엄청난 비대칭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전력을 쏟아왔는데, 오로지 불교만이 대규모의 종교이면서도 대칭적 관계를 중시해왔죠. 물론 유대교나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도 신 앞에서 인간의 평등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비대칭을 전제로 한 평등인 셈입니다."

일신교의 비대칭성이 그동안 과학 발전 등의 성과를 낳기도 했지만 많은 부작용, 곧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대칭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카자와 교수는 "일신교의 경우 윤회를 탈출해 모든 신의 세계를 초월한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 자체에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류의 첫 번째 형이상학 혁명입니다. 그 뒤 탄생한 과학이 두 번째 형이상학 혁명이라면, 그 다음 세 번째 형이상학 혁명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불교일 것입니다. 불교는 근대과학과 일신교, 이들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가와이 하야오 일본 문화청 장관.

두 사람은 불교와 심층심리학, 종교의 여성원리, 불교적 행복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칭성의 회복을 통한 내면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된 일본에만 유효한 결론은 아닐 것이다. 바로 눈앞의 목표물만 좇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에 놓인 인류 모두에게 던지는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가려 엮은 아함경>**(허정 스님 엮음, 지혜의 나무, 1만8천원)=초기경전 중 하나인 <잡아함경>의 1,362경 가운데에서 재가불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기본 교리를 담은 160경을 뽑아 엮었다. 귀의, 붓다, 믿음, 보시 등 19개의 주제로 분류해 찾아보기에 편하도록 구성했다.

■ **<풍경소리 2>**(풍경소리 글, 정병례 전각, 샘터, 8천원)=복잡한 도심 지하철역에서 불교적 가르침으로 감동과 지혜를 전해주는 '풍경소리'에 실린 글과 전각을 모은 두 번째 책.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분침과 시침' 등 61편이 실려 있다. 법정 · 혜자 스님, 박경준 교수, 김원각 시인 등이 필자로 참여했고, 고암 정병례 씨가 전각을 맡았다.

■ **<불교우화 1 · 2>**(이용범 지음, 수희재, 각 1만원)=불교의 우화와 설화 266편을 두 권의 책에 담았다. 짧은 글 속에 많은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불교우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줄 것을 작가는 권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라는 부제가 붙은 1권에는 생활에서의 지혜를, '복 밭에 씨를 뿌려라'라는 부제의 2권에는 불교적 지혜를 주로 담았다.


틱낫한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 속의 샘물
틱낫한 글 | 보 딘 메이 그림 | 이해인 옮김
계림북스쿨 | 8천5백원


성자가 된 똥지게꾼
김종표 글 · 그림 | 푸른나무 | 8천8백원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 · 그림 | 운주사 | 9천원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글 | 김장열 그림 | 솔바람 | 1만원

자녀와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 어린이 불교 그림 · 만화책 4권 잇따라 나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모든 불자의 염원이다. 자녀들 또한 그러하기를 불자들은 바란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다.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줄 책이 그림책과 만화책으로 나왔다. 자녀들과 함께 읽으며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틱낫한 스님이 들려 주는 마음 속의 샘물>은 틱낫한 스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어린 틱낫한은 성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높은 산을 한 달음에 오른다. 하지만 정작 만난 것은 작은 옹달샘뿐. 옹달샘 물로 갈증난 목을 축이고 큰 행복을 느낀 틱낫한은 샘물에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틱낫한 스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 역시 어디선가 이미 성자를 만났을지 몰라. 어쩌면 그것이 바위, 나무, 별…, 혹은 아름다운 노을일 수도 있을 테지." 성자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성자가 된 똥지게꾼>은 불교 설화를 그림책으로 꾸민 것이다. 인도의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똥지게꾼 니이다이가 성자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사람들의 천대를 못 견디고 자살하려고 산으로 들어간 니이다이가 산속에서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이다. 주

두 권의 그림책이 간결한 내용 속에 강한 울림을 담고 있다면,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만화가 줄 수 있는 코믹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자타카(본생경)>에 근거하여 불교만화가 정수일이 만화로 꾸몄다. 66개의 이야기를 실었고, 각 이야기 말미에는 그에 담긴 교훈을 적어주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은 선사들의 선문답과 일화를 만화로 풀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책이다. 가섭, 달마 스님을 포함해 선지식 60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문의:(02)737-0695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청정도론 1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2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3	탄허스님의 동양사상 특강	탄허 스님	교 림
4	참나	혜거 스님	선 문
5	육조혜능평전	이 은 윤	동아시아
6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7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림 스님	바 보 새
8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9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 림
10	열흘간의 만남	오현 스님 외	아름다운인연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無心〉! — 무심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참된 웰빙을 맛본다!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기농과 스파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는 원리!
직장상사에게 먼저 코를 꿰어주는 넉넉한 마음!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을 읽으면, 당신도 부처님처럼 웰빙할 수 있습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직장인 명상캠프'에서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출간 2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책 이 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 자 : 문 화 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수선재
펴 낸 날 : 2004년 5월 6일
가 격 : 9,000원
분 량 : 240쪽

도서출판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2>



전생과 내생을 말하지 말라

전생은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물론 윤회의 가르침은 붓다의 가르침 중에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윤회의 가르침의 본의는 잊혀지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경전은 윤회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해 줄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환생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들 자신이 얼마간 구원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윤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윤회에 대한 믿음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다. 바르게 윤회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삶을 살도록 고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미래의 삶에 옮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선 좋은 삶을 살고 올바른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윤회를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전생과 내생에 관해 궁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잡아함경>의 <숙명경(宿命經)>에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많은 비구들이 모여 전생에 관하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너는 전생에 어떤 업(業)을 지었고 얼마나 솜씨가 좋았으며 무엇으로 생활을 했는가?" 이 때 세존께서는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천이(天耳)로 비구들이 논의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대중들 앞으로 가서 자리를 펴고 앉아 모든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에 모든 비구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을 낱낱이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전생에 한 일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범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혜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도 아니며, 열반으로 향하지도 않기 때문이니라. 너희 비구들은 마땅히 함께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논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에 도움이 되고, 법에 도움이 되며, 범행에 도움이 되고, 바른 지혜와 깨달음이며 바르게 열반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하는 호기심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붓다는 이런 것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열반을 향한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훈계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에 자신이 했던 일을 추억하며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지금 현재엔 내가 별로 볼품이 없지만 한 때는 나도 부자였고 아름다웠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려거나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나태의 심리가 있는 것이다. 붓다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삶에 대한 관심도 현재 해야 할 일을 외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잡아함경>의 <나리가경>에서 붓다는 내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한다. 제자들이 얼마 전에 죽은 재가신도들의 내생이 궁금하여 여쭙자 붓다는 대답한다. "그대들은 그들의 내생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죽고 난 뒤의 일에 대해 묻는 것은 그저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며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에 즐겨 대답하지 않는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무엇이 궁금한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나고 죽으니 내생이 궁금할 이유가 없다. 죽기 전 해놓은 업에 따라 태어날 것이니 본인이 본인의 내생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나고 죽으니
과거·미래 알려 말고 현재를 바로 보라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며, 미래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행하는 바에 달려 있다. 당신의 과거의 삶을 알고 싶으면 현재의 당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당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해 놓은 행위의 결과이며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짓는다.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윤회 교리의 본의이다. 이런 본의를 잊어버리고 호기심 삼아 재미로 전생을 말하고 내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교수

지상 백고좌

대 해 스님

(경남 함양 변조암 주지)



"차 한잔을 놓고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해 스님. 공부는 순풍에 돛 단듯 순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한다.

묘관음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인근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밀려 도저히 빠져 나올 수가 없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칠성 스님이라고 수영을 잘 하는 스님이 구해주려고 했으나 파도가 워낙 세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너무 없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죽게 되었으니 화두나 놓치지 말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사이신 향곡 스님께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를 받아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2m가 넘는 파도에 휩쓸려서 60~70m 정도 밀려가는 와중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서 헤엄쳐 나올 수 있었어요. 칠성 스님도 멀리 떠밀려 갔다가 다시 헤엄쳐 나와서 살았지요. 나도 살고 그 스님도 살았습니다. 화두 든다고 하는 게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이후에 죽음과 화두가 연계가 되면서 상당히 힘을 받아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를 사다리 삼아
견성성불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한번에 뛰어오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나를 공부로 이끌어 준 이는 관묵 스님입니다. 속가 형님인데 출가해서 정진하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나보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십만 번 하면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떨어뜨린다"고 해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믿었지요. 그 말에 속아 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저 숨 한번 쉬면 신묘장구대다라니 한번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했으니 수 십만 번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랬어요. 무서움이 한창 많을 나이인데도 그 때부터는 정말이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화두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화두 챙기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향곡 스님께 출가하게 된 것도 관묵 스님이 우리나라에 향곡 스님만 한 분이 없다고 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선방과 토굴을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 한참 공부할 때는 앉아서 화두를 들다보면 숨 세 번 쉰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고 해가 떠 있어요. 그렇게 해 뜬 것보고 또 숨 세 번 쉰 것 같은데 어느새 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순풍에 돛 단배 가듯 하면서 장좌불와(長坐不臥)도 시작되었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 힘을 받아서 할 때는 잠깐 잠깐 정(定)에 들면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피로가 싹 가셔버려요.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억지 공부를 하면 똥을 잘 못 눈다든가, 피똥을 싼다든가 이상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일주일 힘든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턴 순순하게 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곧 나에게도 다가올 것 아니냐'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3년 동안 고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파국의 소나 라는 수행자가 지나칠 정도로 수행에 욕심을 부리자, 거문고 줄의 비유를 들어 중도(中道)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무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중도를 지켜나가면 머지 않아 번뇌를 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하셨죠.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너무 억지 공부를 하면 몸만 망가지는 것 인줄 알고 나의 근기(根機)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달빛이 비치는 보금자리에서 학은 천년동안 꿈을 꾼다(月巢鶴作千年夢)

눈집을 진짜 집으로 아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雪屋人迷一色空)

앉아서 시방을 끊었다 해도 이마에 점 찍은 것 같으니(坐斷十方猶點額)

비밀한 곳을 일보 옮겨야 훨훨 나는 용을 볼 수 있으리(密移一步看飛龍).

사람의 몸뚱이는 햇볕에 자취 없이 녹아지는 눈집과 같은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공부한 결과, 앉아서 시방세계를 다 끊었어도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바위에 부딪쳐 결국 다시 떨어진 것과 같아서 올라가지 않음

육법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중국 실크로드 10일 ▶출발일 : 6월 30일 ····· 177만원
서안-종남산-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유림석굴)-투루판-우루무치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석굴을 답사하는 최고의 일정

특선2 인도세미 배낭여행 10일 ▶출발일 : 7월 15일 ····· 149만원
● 인도 7대불교성지순례 : 델리-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호텔,차량,식사,입장료,보험,안내자등 포함 / 인도비자대 불포함

특선3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7월 20일, 8월 10일 ····· 293만원
● 일정 :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특선 상품담당 : 심용훈 과장 011-749-5010

■ 티벳, 네팔 순례 12일 ▶출발일 : 6월4일 ·····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 수미산 순례 25일 ▶출발일 : 6월21일 ····· 405만원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순례는 보다 완벽하게 진행하고자 일정이 하루가 늘어 25일간 진행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한 순례 일정과 제반 준비등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허가서,입장료,비자대,호텔,식사등 포함

'탐 진 치' 먼저 끊고 道를 구하라

기자가 뵌 대해 스님

수십년 장좌불와…누울곳 없는 토굴서 수행

향곡 스님의 제자인 대해 스님은 함께 수행했던 스님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장좌불와를 해 온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장좌불와를 했다고 하시던데…"하고 여쭈니 "나는 장좌불와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남들이 잘 때 공부 좀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남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말씀 끝에 스님의 좁을 방을 둘러보니, 누울 자리가 따로 없다. 앉은뱅이 책상 앞에 놓인 좌복과 높다란 책상 위에 놓인 좌복, 그리고 벽에 걸린 책꽂이와 옷걸이가 전부다. 높다란 책상 위의 좌복은 졸음이 올 때 올라가 좌선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일컬어 '숨어사는 토굴승'이라고 말하는 대해 스님은 군대를 다녀온 후 2년 동안 월남전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으나 중학교 이후 계속된 공부 길을 따라 향곡 스님의 제자가 됐다.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전국의 선방과 토굴에서 수행하던 스님은 4년 전, 이곳 함양 변조암으로 왔다. 작은 토굴에서 보리와 백구라는 개 두 마리와 살고 있는 스님은 이곳에 오자마자 손수 밭을 일궈 상추, 가지, 매실나무, 감자, 고구마, 우엉, 오미자, 가죽, 앵주, 해당화, 머루, 고로쇠, 대추 등을 알뜰하게 심고 가꾸어 놓았다. 수확물이 나오면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가을에 감도 따가고 매실도 가져가라"고 하신다.

대해 스님은 불법의 고요적적한 대의를 묻는 임제 스님에게 90방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황벽 스님처럼 세 차례에 걸쳐 차를 우려내 권하시며 매번 이렇게 물으셨다. "차 맛이 어때?" "첫잔의 차 맛은 첫 날 30방 맞은 차 맛이고 두 번 째 잔은 다음 번에 맞은 30방이야." 세 번 째 잔을 따르며 "불법의 대의를 일러보아라 하는데 일러도 삼십 방이요, 못 일러도 삼십 방이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고 물은 뒤 "차 한 잔을 놓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짐짓 스님은 차 맛을 핑계삼아 차를 마시고 쓰다 달다 라고 알고 답하는 그 놈을 연거푸 내리치고 있었다. "차 맛이 어때?" 천미희 기자

'~하지 말라'는 오계의 적극적인 의미는 방생·보시·청정행·화합·만족하라는 것



작은 토굴에서 손수 밭을 일구며 수행하는 대해 스님.

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밀한 곳을 일보 옮겨야 훨훨 나는 용을 보리라 했습니다. 비밀한 곳으로 일보 옮긴다는 의미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훨훨 나는 용을 볼 수 있으며 견성성불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시방세계를 끊었다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임(保任)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 부처님께서 하신 '놓아버려라'는 법문을 잘 새겨봐야 합니다.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말일까요? 바로 십팔계(十八界)를 놓아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십팔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안이비설신의 (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이 있습니다. 육근의 대상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육진(六塵)인데 그 육진에 인연하여 육식(六識)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미촉법에 인연하여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여섯 종류의 인식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근, 육진, 육식 등 이 열 여덟 가지에 또 탐 진 치 삼독심이 뿌리를 내리면 열여덟 도둑놈이 됩니다. 그 도둑놈을 막아내기 위해 율(律)을 만들어 계(戒)를 설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일체의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칠불통계게(七佛通誡偈)의 말처럼 계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가 중요하지만 탐 진 치를 끊고 참선이나 염불을 해서 정(定)에 들면 굳이 계를 따로 지키고 말고 할 게 없어집니다. 그것을 정공계(定共戒)라고 합니다. 정에 들면 몸가짐과 말하는 것 등이 저절로 율의에 계합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공계(道共戒)라고 하여 도를 통해서 부처님처럼 될 때는 계가 그냥 따라 오게 됩니다. 저절로 몸과 말의 허물을 여의게 되며 그때에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해도 참말이고 거짓말을 해도 참말이 됩니다. 이에 반해 중생은 아무리 참을 말해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를 사다리 삼아 차근차근 견성성불을 향해 밟고 올라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정상으로 뛰어오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탐 진 치 삼독을 없애고 계를 통해 도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탐진치가 끊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소견머리가 나오는 것이니 일어나는 마음의 일렁거림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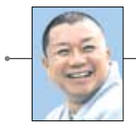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목전에 명명백백한 형체 없는 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달 동안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은 단 5분만 안 쉬어도 죽게 되지요? 그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놈이 턱하니 보이는 겁니다. 자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소견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공부 힘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공부, 즉 보임을 해 나가야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에 놓고 다 내다보게 됩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언젠가 흔적 없이 스러질 몸뚱이에 연연하지 말고 우주가 멸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화두를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해 보십시오. 대신심을 바탕으로 대발심, 대의심, 대분심, 대용맹심을 일으켜 밤잠을 설치고, 배고픈 줄을 모르고 덥비는 마음이라야 장좌불와도 순순히 되는 거고, 공부도 순순히 되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 단듯 순순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깊어지면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니어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내다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 고산 스님(1)



고산 스님께서 쌍계사 주지 소임을 맡은 것이 70년대 중반인 듯싶다. 그 때만 해도 농촌지역의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활동이나 신행활동은 거의 없었다. 법회는 신년 초나, 사월 초파일에 하고 일년에 한 두 번만 절에 가면 부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쌍계사는 구례에서 가는 것이 하동보다 더 가깝다. 나는 고산 스님이 쌍계사에 오시기 전에는 광주 향림사를 다녔다. 향림사는 천운 스님이 계신 곳이다. 고산 스님과 천운 스님은 도반이기도 하지만 두 분 모두 포교 역량을 마음껏 펼쳐 포교에 큰 획을 그은 분들이기도 하다. 천운 스님은 오두막에서 오갈데 없는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그림 · 문병성

도심포교를 해나가셨고, 고산 스님은 해박한 교학과 근면을 바탕으로 부처님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셨다.

고산 스님이 쌍계사로 오신 이후부터는 큰스님을 모시고 여법한 법회를 볼 수 있으니 구례지역의 불자들이 쌍계사로 몰리게 되었다. 산골이나 농촌의 불자들은 쌍계사 보살계 법회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큰 법회를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스님과 함께하는 발우공양과 금당에서의 철야정진 등은 신심을 크게 돋우는 계기가 되었다.

시골의 불자들에게 고산 스님의 존재는 대단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구례에 쌍계사 신도회가 조직되었고 회장소임을 나의 속가 모친이 맡게 되었다. 당시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 정릉 봉국사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재수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큰스님과 나의 모친이 이야기 도중에 내 문제가 거론되어 나는 영문도 모르고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삼배를 드리고 나자 스님께서 "너, 내 상좌 해 볼 생각 없느냐?" 하셨다. 내가 기죽은 소리로 "스님, 저는 대학을 가려고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답했다. 그러나 스님은 내가 봉국사에서 출가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알고 계신 듯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큰스님과 유발상좌로 인연을 맺었다. 열 살도 되지 않은 막내 동생은 이미 큰스님의 유발상좌였다. 막내 동생이 유발상좌가 된 내력이 특이하다.

속가 모친과 막내 동생이 큰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삼배를 드리는데, 여섯 살도 채 안된 꼬마가 절을 하다말고 큰스님 품속으로 뛰어들어 가슴에 착 안기고는 서럽게 울면서 이제 집에 안가고 큰스님과 함께 절에서 살겠다고 했다. 그러는 꼬마를 가만히 내려다 본 큰스님이 꼬마 하는 말이 기특하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꼬마의 원대로 해줬다. 너는 나와 전생에 지중한 인연이 있다. 하지만 절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리니 고등학교만 마치고 오면 그때 머리를 깎아주겠다는 말에 꼬마의 얼굴이 풀어지더라는 것이 나중에 모친의 얘기다. 그 바람에 큰스님과 나와의 인연도 맺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큰스님 법력의 외호를 입고 모두 부처님말씀을 따르는 신행생활에 충실하며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족 중에 세 사람이나 출가를 하게 되었다.

곁에만 있어도 마음 편안 다재다능·근면·해박

나는 중학교 때부터 쌍계사에서 방학을 보냈다. 그리고 스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스님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아주 편했다. 난 그게 무척이나 궁금했다. 친부모로부터도 느끼지 못했던 묘한 편안함이었다. 다른 스님 곁에도 가서 앉아 보고 해도 고산 스님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스님은 여행이 아무리 고되고, 일이 많아서 늦게 주무셔도 새벽 예불은 빠뜨리지 않으신다. 몸이 편찮으셔도 그랬고 백팔배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그리고 예불 시작 전까지 좌정해 계시는 모습은 말 그대로 거룩하고 청정하기 그지 없어, 나는 스님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스님의 뒤에서 한참동안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스님은 절이 불사중일 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인부들과 함께 일하신다. 들어서 신심 나고 재밌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다 보면 힘들던 일도 어느새 끝이 보이게 마련이다. 나무와 채소 가꾸는 일도 손수 하신다. 하루는 신도가 개업하는 병원의 안택 의식에 <금강경>을 암송하는데, 스님의 총기에 주눅이 저절로 들었다. 음식도 잘 만드시고, 집도 잘 짓고… 아무튼 나의 좁은 소견으로도 고산 큰스님은 수행자로는 한마디로 '짝' 이다.

행자생활만 7년을 하시면서 외워야 할 것들은 그때 모조리 다 외우고, 스님으로 배워야할 것도 다 배웠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무척 써는 시범을 보이는데, 채공보살이 저절로 주눅이 들 정도다. 참으로 다재다능하시다. 그러다보니 스님은 상좌가 굼뜨거나 똑바르지 못하면 불호령을 내리신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결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부처님이 있어 행복한 6월

불경, 사경, 조각 등 국내외 전시 잇따라

부처님오신날은 지났지만 6월에도 여전히 풍성한 장르의 불교미술 전시를 국내외에서 만날 수 있다.

우선 고려불화를 유화로 재현하는 강록사 화백의 '고려불화 초대전'이 6월 20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미술관에서 열린다.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6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강씨는 100호 크기(높이 162㎝)의 '수월관음'을 비롯해 '아미타여래' '아마타삼존' '아미타구존' '지장보살' 등 30여점의 불화를 선보인다. 특히 머리카락처럼 정교한 '사라(그물망으로 된 옷)'를 걸치고 있는 수월관음의 모습은 눈여겨 볼만하다. 실제로 터치가 굵은 유화로 '사라'를 그리기 위해 강씨는 제일 가는 서예붓의 털을 모두 면도칼로 자른 다음 3~4 가닥만 남겨서 작업했다.

강록사 화백은 "고려불화의 형태나 화려한 색채 등은 가히 세계적이지만 현재 거의 일본에 건너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우리곁에 영원히 두고 싶은 충동에서 고려불화 재현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33)462-2304


강록사 화백의 '수월관음도'.

원응스님(지리산 벽송사 조실) 도6월 1~6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화엄경> 금니(金泥) 사경 展'을 개최한다. 60만자를 금가루로 옮겨 적은 사경 작품은 80권의 병풍형 책자 형태로서 길이로 펼치면 1,300m에 달하는 대작이다.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만도 10년이며, 사용된 금의 양은 4kg, 붓도 60자루 이상 소진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금니사경, 금니 탑다라니, <화엄경>금니부채, 선시와 묵서 등 160여점이 함께 벽에 걸린다. (055)962-5662


원응스님의 '<화엄경> 금니사경(왼쪽).

불교조각가이자 서양화가인 남용철씨의 두 번째 개인전 '삶과 자연 그리고 부처님 조각전'이 6월 2~ 8일까지 경인미술관 제 3전시실에서 열린다. 풍경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것은 첫 전시회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전의 중간색 톤을 단계적으로 지향해 가면서 강한 색조와 거친 터치를 통해 내면을 열어보이고 닫힌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구조로 변신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풍경' '청죽' '만추'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이 전시회에서는 은행나무로 곱게 판 '석가모니삼존불' '탑' '미륵보살반가상' 등 불교조각 작품들도 20여점 선보인다. (02)381-8445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전시회가 기획된다. '달마도에 담겨진 무념무심의 향기로 참나를 찾는다.' 김호연 교수(동국대 미술학부)에겐 90년초 뉴욕 교환교수 시절 5개월간 아무 작업도 않고 흰 벽만 바라본 시간이 있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대상을 '무(無)'자 화두에서 간절히 찾으면서 화폭에 옮긴 그림이 바로 먹으로 그린 드로잉 '달마'였다. 그때부터 김 교수는 선불교를 처음으로 동양삼국에 전파한 달마대사를 화두로 삼아 다양한 달마도를 그려대기 시작했다. 그 결실이 바로 '생활속의 선'을 주제로 한 달마도 전시회다. 신발을 긴 장대에 매달고 가는 달마, 면벽 좌선하는 달마, 이웃집 아저씨처럼 익살스러운 달마 등 각양각색의 달마도와 조각 50여점이 전시된다. 6월 12일까지 미국 LA아스토 갤러리. (213)972-0995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김호연 교수의 '달마'(오른쪽).

강록사 화백(6월 20일 까지)

'고려 불화 초대전' 만해마을 미술관

원응 스님(6월 1일~6일)

'<화엄경> 금니 사경전' 대구 문화예술회관

남용철 화가(6월 2일~8일)

'삶과 자연 그리고…' 서울 경인미술관

김호연 교수(6월 12일 까지)

'달마도에 담겨진…' LA아스토 갤러리

'오케스트라 아시아' 부처님오신날 특별연주회를 보고

3천여 객석 한마음, 부처님 향기로 가득

불협의 세상 화음세상으로 바뀌길…

"사람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데 화음(和音)을 이루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이 음악회를 계기로 아시아 삼국은 물론 온누리가 화음의 세계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5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국 · 중국 · 일본 민족악단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불향(佛香)' 연주회가 끝난뒤 만찬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이렇게 축사를 했다.

3천여 객석과 3백여 연주자(오케스트라단 75명, 합창단 240여명)가 한마음이 된 그 현장에는 백세를 바라보시는 석주노스님도 계셨다.

스님께 여쭈었다.

"오늘 음악회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그 뭐랄까…."

큰스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찾고 계신데 시봉하는 분들이 모시고 나갔다.

도올 김용옥 선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좋았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시원치 않을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주 좋았습니다. 불교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올해 처음으로 불교음악회를 연 것은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의 불심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력 큰 한 사람의 불심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불교 인연이 깊은 한중일 3국의 '불향' 공연이 중국 일본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되길 바란다.

한중일 삼국의 불교계가 지원하여 불협화음의 세상을 화음의 세상으로 바꾸는 음성공양 그리고 소리법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한중일 세나라의 전통음악 특성이 살아 있으면서 세나라의 악기 소리가 서로 화음을 이룬 연주에 객석은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밤 다시들은 교성곡 '붓다'는 또 새로웠다. 중앙대 최향순 교수가 안무한 여러개의 큰 북 공연이 희망, 승리, 환희를 구가하는듯 붓다의 무대를 더욱 빛냈다.

박범훈 교수에게 질문했다.

"대사를 마친 소감은?"

"공허합니다. 연주를 마친 뒤에 그 공허함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텅 빈 느낌입니다."



그것은 공허 속의 충만이 아닐까? 마치 허공 속의 부처님 향기(佛香)처럼.

최정희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

국립중앙박물관 봉축 특별展

금동삼존불상, 사리 등 6건 22점

조선 초기 조각기법 눈여겨 볼만

10월 회수됐던 금동삼존불상 등 도난 문화재 22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부처님오신날 기념특별전 '중생을 향한 구원의 손짓' 展을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광화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은 전라남도 순천시 석탑부재 속에 있던 유물로 청동 불감(佛龕 · 불상을 안치하는 소형 불전)과 금동삼존불상, 1468년이라는 제작연대가 기록된 발원문, 사리, 복장유물 등 총 6건 22점. 이들은 도굴범에 의해 서울 인사동 한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 출품돼, 한 때 매매가 시도되기도 했던 조선시대 불교미술품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금동삼존불상은 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배치한 지장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상로 이루어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유행한 구성양식을 따랐다. 이러한 형식은 1476년 조성된 전남 강진군 무위사 극락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로 이어진다.


금동삼존불상과 청동불감(사진 뒤).

이 삼존불은 단정하고 정제된 조각기법으로,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 연구의 기준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南北 불교 관련 학자들 한자리

8월 19일 국제학술세미나 개성서

남북불교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8월 19일 북한 개성에서 열린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남북불교 교류사상 처음으로 남북불교 공동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성 '자남산 려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북한의 영통사복원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영통사 복원 회향과 대각국사 의천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다.

남측의 리영자,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와 북측 윤국일, 리창언 사회과학원 겨수, 리의화 조선문화보존국 지도국장, 일본 다이쇼대학 타다교분(多田孝文)교수 중국 화동사범대학 시에쭌메이(謝俊美)교수 등 7명의 불교관련 학자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박봉영 기자

6면 상식 퍼즐 정답

관	결		좌		가		청	빈
불	가	사	의		공	명	정	대
	부		정	사	유		도	
상	좌	부		경		지	론	종
		루	비		백	하		
어	머	나		개		철	부	선
	리		삼	국	지		지	
대	기	설	법		장	생	불	사
하	사		인		전		식	도

그대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금과옥조)와도 같은 그 제1계 "불상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인 이 오탁악세
(五濁惡世)에 ...



자명 편저 / 도서출판 화담 /
4×6변형판 137쪽 / 값 10,000원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 · 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문의처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권 해 동 승 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줄 탁 동 시
(참선 · 부처님 호흡법, 자동단전호흡법, 챠크라 여는법)

◆ 쪼그리고 앉아 배꼽아래 명치를 손으로 쥐어보면 불행과 병고액난의 화병 덩어리가 잡히는데, 중단전 챠크라가 막힌 것으로 이런 사람은 호흡수련이나, 염불, 독경, 주력, 위빠사나, 참선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배꼽 주변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허리나 손가락 마디가 까맣게 되며, 얼굴이 붉어지고 상기병이 되므로 수행의 제일 우선 과제는 중단전 챠크라를 여는 것입니다.
◆ 중단전 챠크라 지옥 덩어리를 간단한 수행의 비법으로 찰라에 뚫리게 하여 순간 수승화강이 되어져 머리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손, 발, 배는 따뜻해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 위빠사나, 참선 단전호흡 수행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쳐지고 허리를 약간이라도 구부리고 또한 너무 반듯한 자세로 경직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100% 상기병 걸리니 자세법, 이완법, 집중법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 염불, 독경, 주력 수행의 들숨시에 배가 들어가고 어깨, 가슴이 들먹거리는 역호흡으로 숨을 들어마시게 되면 불행의 늪인 병고액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동단전호흡법을 배우시게 되면 몸과 마음과 호흡이 참으로 건강한 수행자가 되어집니다.
△ 자동단전 호흡법의 기초에서부터 참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심신건강의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낮 반 : 오후 1시, 저녁반 : 오후 8시
☞ 수 련 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월: 3만원)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http://cafe.daum.net/sorisan

" 숨을 氣차게 잘 쉬는법 " 책 5월 출간 예정

신행수기

마음 찾아가는 길목 〈상〉

이정숙 (시인)

멋모르고 처음으로 108배라는 걸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불상이 있는 곳은 다 절인 줄 알았던 시절이었다. 정법이 따로 있다는 것, 사이비 법당이 무수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던 시절, 친구를 따라서 세검정 산꼭대기에 제법 번듯한 암자를 가게 됐다. 대통령 부인도 다닌다는 유명한 절이었다.

암자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바싹 긴장했다. 스무 평 남짓한 방 정면에 그 벽면을 가득 채운 백의관세음보살상을 배경으로, 한 여인이 연분홍 한복차림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높은 보료 위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마치 벽면의 보살이 내려앉은 듯 상호가 좋았고 약간 비만한 몸 매무새가 분위기를 압도했다.

오후 두시로 예약하고 갔는데도 기다리는 사람이 스무 명 남짓했다. 비밀도 없이



그림 · 김흥인

친구따라 가서 만난 보살
직장문제 고민 풀어줘
正法 아닌 곳서 인연 싹터

모든 사람이 함께 듣고 있었다.

"응, 아우 왔구먼, 기다려."

그 여인이 친구를 건너다 보며 아는 체를 했다.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는 여인의 음성은 맑고 부드러웠으나 위엄이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삼주(그녀는 시를 보지 않고 년 월 일 三柱만 봤다)를 적어 냈다.

친구는 수년 째 단골이라고 했다. 남편과 같이 왔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승진 때문에 온 모양인데, 병원부터 가요. 지금 건강이 문제지, 승진은 나중 문제야, 몸이 좋아지면 다 저절로 좋아져… 병원 들렀다가 나중에 와요."

삼주도 내밀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 멀쩡한 남편은 마누라 때문에 망신당했다며 난리지… 하지만 병원에 가보란 소리가 걸려서 병원엘 갔지 뭐." 종합검사 결과 친구의 남편은 췌장을 들어내는 수술을 했고 완쾌 후 승진을 했다며, 그 이후 계속 대소사를 상담하며 산다고 했다.

차례가 됐다. 그 여자는 나를 힐끗 건너다보더니 친구와 수인사를 끝내고 삼주를 풀기도 전에 툭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왜 직장 바꿔 보려고? 지금 있는 병원도 괜찮은데…."

숨이 멈출 것 같았다. 직장에 관한 일을 물으려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은 친구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척 한 분이 산부인과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곳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다가, 낙태수술의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곳으로 평판이 좋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다. 마침 여고 교사 자리가 생겨서 옮길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집어냈다.

"수입이야 병원이 좋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훨씬 좋지. 선생님은 가문이기도 하거든. 돌아 갈 때 법당에 가서 108배나 좀 하고 가요. 병원에서 좋은 상담만 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상담만 한 거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나는 법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상담의 반 이상이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였고, 의사의 책임이 문제될 때를 대비한 형식적인 만류가 내 몫이었고 그 기록을

108배 권유에 '까짓거' 도전
10년 절하기 수행 계기 돼
점차 미혹 벗고 지혜향한 삶

남기는 일이었다. 늘 그 일에 회를 느끼고 있던 터여서 겁도 없이 108배에 도전했다. 그때의 상황으로는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다.

좋은 상담만 한거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양심이 찔리기도 했다. 법당에서 3배 이상 해본 적도 없으면서 까짓거 못하랴 싶었다. 108배는 생각 보다 힘들었다. 친구의 부축을 받고 겨우 계단을 내려왔다.

'정말 이상해, 어떻게 병원에 있는 줄 알지? 크레졸 냄새가 몸에 배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걸 어떻게 알지…'

그 날의 놀라움이, 다리가 아파서 3일이나 끙끙 앓은 참회의 108배가 나를 여고 선생님으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날의 108배가 10여 년 간 절 수련을 하는 계기가 됐고, 그 삼주 보살과 개인적 친분을 맺게 됐다.

나는 심심하면 삼주 보살을 찾았다. 가기만 하면 그녀는 108배를 시켰다.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자식들이나 남편이 잘되고 너도 건강해진다. 7일을 매일 108배씩 해 봐. 좋은 일 있을 테니…."

나의 불법 인연은 이렇게 정법이 아닌 곳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점차 미혹을 벗고 밝은 지혜를 향하는 인과의 씨앗을 심은 셈이다. (계속)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이종린
홍익소아과 원장

그러나 여전히 외로웠다. 왜 그 많은 선지식들께서는 행원에 관해 말씀이 없으신 것일까. 과연 화두를 들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것일까. 화두 타파 없이는 결코 견성하거나 성불할 수 없다는 큰스님들의 말씀은 더욱 이런 회의를 깊게 하였다.

그런데 그 의문을 풀어주신 분이 불광사의 광덕 큰스님이셨다. 정말 기뻤다. "보현행원은 일체 중생이 부처님임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꺼져가는 내 안의 불성을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어 우리 모두의 불성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깨친 후에야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번뇌 가득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당장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현행원을 통해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소낙비처럼 쏟아짐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달이 떠 올라 무명의 밤하늘을

"지금 이곳이 수행처" 광덕스님께 배워
"부처공양·중생공양 실컷 하자" 서원

조금씩 비추이기 시작했다. '세간 속에서 해탈 얻으리라.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바로 행복하게 해주리라, 부처님으로 만들어 드리리라' 다짐했다.

부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정토이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근무하는 일터를 도량 삼아 '홍익암'으로 부른다. 아침에 홍익암에 출근하면 잠시 입정 후 '주위의 모든 아픈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좋은 벗이 되겠다'는 원을 시작으로 삼귀의 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보현행원품>을 일독하고 염불정근, 발원으로 하루를 연다.

환자가 없는 한가한 시간이면 짬짬이 경전공부를 하거나 참선을 한다. 사이사이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 아이들 꼭 낫게 하고 부모님들은 보리심을 발하게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발원과 함께 진료실로 나아가 환아들을 맞는다.

병원을 찾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반갑다. 너 참 이쁘구나. 이 놈 효자 되겠다. 선생님이 너의 아픔을 싹 낫게 해줄게' 하는 축복을 드린다. 그리고 '어서 이 아이들이 빨리 나아서 부모님 걱정 근심을 덜게 하소서' 하고 관(觀)을 하고 원을 세우는 일도 잊지 않는다. 작은 부처님들이 어서 빨리 자라 큰 부처님 되어 일체 중생의 복밭을 일구기를 바랄 뿐이다. 보리심을 잊지 않으면 전화를 받는 것도 공부요, 찾아오시는 분을 잘 모시는 것도 공부요, 환자 잘 돌보는 것도 공부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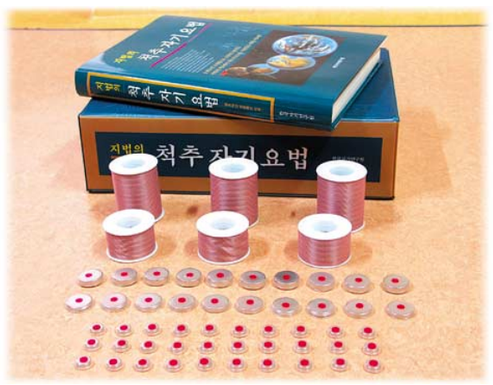
특별한 발원에서일까. 우리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보다 비교적 잘 낫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비록 출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은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이지만 보리심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리라.

불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화엄경>에서 "이 장엄한 법계가 모두 보현의 원력에서 나왔다"는 대목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다. 보현보살님은 이 세상을 장엄하게 만들 정도로 원이 크신데 나는 지금껏 욕심으로만 살아와 눈을 씻고 봐도 원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무슨 원이든 하나 만들어 부처님께 꼭 공양 올리겠습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광수공양원(廣修供養願)'으로 발전되고 다시 '중생공양원(衆生供養願)'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번 생은 부처님 공양, 중생공양 실컷 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있다.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면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하여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폐(폐식,폐변,폐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자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포교 · 교육 · 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 포교분야
주간 도선법보, 월간 여성불교, 홍은동 포교당, 봉천동 포교당, 성주 대흥사, 안동 세심사, 하와이 무량사

■ 교육분야
재단법인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중고등학교, 도선불교 실달학원 교리반 경전반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불교양로원, 혜명보육원, 각구 어린이집 11곳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대중일동 합장
우142-87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전화 02)993-3161~3 / 팩스 02)993-3164 www.dosunsa.or.kr

서울 경희의료원 '꽃놀이 방' 개원 |

"병실생활 이제 짜증안나요"

'우주법계사' 보살들에 의해 새단장
오전 10시부터 2인 1조로 봉사활동
인형극, 육아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



경희의료원 '꽃놀이 방' 자원봉사자 김희자 씨의 '인형 놀이'에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유승이, 힘자랑 그만해요."

"싫어요!"

꽝~. 트럭 장난감이 내동댕이쳐진다. 이것도 모자라 이 구석 저 구석을 뛰어다니며, 온 방을 종횡무진 누빈다. 입원 후 3일내내 링겔 주사를 달고 지냈던 유승이(7). 해방감에 물 만난 물고기가 됐다. 조심하라는 엄마의 말은 잔소리에 불과하다.

5월 20일 서울 경희의료원 '꽃놀이 방'. 아침밥 수저 놓기 무섭게 12층 소아과 병동 '장난꾸러기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다. 새침때기 다희(5), 색종이 접기 박사 승호(6), 블록 쌓기 대장 민수(7)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엄마들의 수다도 시작된다. 아이들의 병이 얼마나 낫는지 묻는 것은 기본, 육아교육 문제, 심지어 남편과 시어머니 흉보기에 이르기까지 놀이방은 어느새 엄마들의 사랑방이 된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말수가 적어 졌어요. 짜증도 부쩍 늘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 주세요. 아이가 엄마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원봉사자 이남숙 씨(52 · 희명화)의 조언에 유승이 엄마 허금숙(37)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베테랑 엄마가 전수하는 육아교육 비법에 '젊은 엄마'들의 귀가 쫑긋 선다.

지난달 개원한 '꽃놀이 방'. 3년 전 문 닫았던 이곳을 자칭 '우주법계사' 보살 7명이 의기투합해서 다시 열었다. 다니는 사찰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봉사'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열흘 넘게 동화책에 잔뜩 쌓인 먼지를 일일이 털어냈고, 장난감도 깨끗이 닦았다. 또 순번도 정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놀이방을 지켰다. 오직 아이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잠시라도 이곳에서 쉬었다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죠. 늦게나마 이렇게 놀이방을 열게 돼 요즘은 봉사하는 즐거움에 산답니다."

최근 아이들에게 인형극 보여주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는 김희자 씨(50 · 법진화)가 웃음을 내어보인다.

하지만 '꽃놀이 방' 봉사자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디오, 피아노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기자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놀이방 운영비도 전적으로 봉사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다보니, 아이들의 간식거리 준비에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답답한 병원 생활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즐겁게 웃다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꾸려질 수 있게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우주법계사 보살들은 이를 위해 야무진 서원을 세웠다. 이남숙 씨는 지난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교육 받은 마술을 응용해 '어린이 마술쇼'를 열 생각이고, 김희자 씨는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대학에서 배운 구연동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016-265-6258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도봉사 총무 관덕 스님이 북서울중학교 학생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와~ 맛있다" 매일 오늘 같았으면…

도봉사 원명스님, 북서울중 도봉중에
2500개 햄버거·음료수 봉축선물 전달
사찰 진입로에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중

"햄버거 맛이 꿀맛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5월 24일, 북서울중학교 2학년 12반 교실. 담임인 김 규진 선생님이 햄버거를 들고 교실로 들어오자 '와' 하는 함성이 이어진다.

이 학교 불교반 지도교사이기도 한 김규진 선생님은 "5월 26일은 2548년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햄버거를 선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사 총무 관덕 스님은 "5월 26일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날"이라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한번씩 되새겨보며,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으면 한다"고 얘기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이어진다.

도봉사는 25일에도 도봉중학교 전교생에게도 햄버거와 음료수 만발공양을 실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학교 전교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한 햄버거와 음료수 각 2500개를 북서울중학교와 도봉중학교에 전달한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제 불교는 21세기 시각에서 청소년 포교에 나서야 하고, 대중과 호흡해야 생명력이 있다"며 "미래불교의 희망적인 모습은 청소년포교에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명 스님은 현재 도봉초등학교를 비롯 도봉구 3개 초등학교 결식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2개 중학교 학생 40여명에게 매달 급식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3월 북서울중학교에 불교반 설치를 지원했다. 현재 2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봉사에서 매달 법회를 개최할 수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봉중학교와도 근시일내 불교반을 설립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

스님은 불교반 청소년을 비롯 일반청소년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도봉사로 만들기 위해 도봉사 진입로 500m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중이며, 경내에는 게임방과 노래방, 배드민턴장을 운영중에 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전남지역 어린이법회 지원
조계종 중신회도 동참키로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찬불동요 테이프와 CD, 찬불가 동요집 20세트가 전남지역 어린이 법회 진행사찰에 전달됐다.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성행, 청계사 주지)는 5월 21일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에서 2차 CD 보내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은 본지와 벌이고 있는 찬불동요 CD 보내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중앙신도회에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신도회 최현 사무총장은 "찬불동요 CD 보내기 캠페인에 중앙신도회도 함께 동참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전남지역 어린이 법회 운영사찰에 찬불동요 CD 20세트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의 저금통 수거현황

광주직할시 한마음선원 신도일동- 2백52만 1250원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하신 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성금 내신 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장지원 보살- 200달러(22만원)

▮나눔의 스티커 신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

스티커- 300장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예수재, 49재, 천도재, 화청, 바라, 나비무, 점안식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동학사 일초대강백께서 수년전 불교방송에서 하신 **〈유마경〉**강의 테이프를 매도하시거나 빌려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전화 : 02)722-4162
017-236-5769
임연태(현대불교편집부장)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학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사찰에서 1천만원이상 불사동참. 함께 기도 정진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불자님 초빙
▷강원도 횡성
033)345-7825

기도스님 원하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6264-1666

부전스님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충남 아산
011-783-6979

조계종 소백산 내원암 지장보궁에서 승려의 본분을 다할 조계종 스님으로 은사스님을 의지하며 관리할 **건당 상좌를 구함.** 그리고 40~50대의 신심 있는 공양주로 후원일체를 관리할 **공양주를 구합니다.**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051)441-1430(부산설법원)

행자 및 부전스님 모십니다
▷영주
011-9342-9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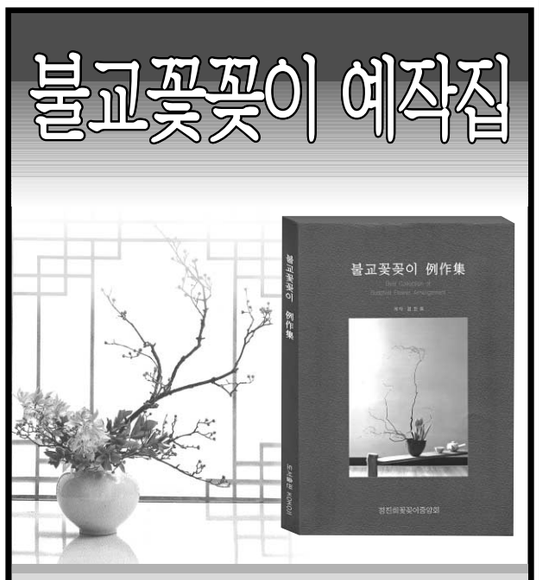
참신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7-294-2003

부전승(여승) 기도하실 수행승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남해 삼천불관음도량
055)863-3114
016-708-0332

공양주를 모십니다
▷천년 관음 기도도량
포항 자장암
011-584-0888

산수 좋은곳 행자님 연락 바랍니다
011-696-8500

자동차 시주해 주실분
▷차종은 4륜구동이면되고 소중하게 감사히 쓰겠습니다
010-3056-3315
영암스님



* 저자 : **정진희** (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강사)
* 내용 : • 상단꽃꽂이 • 예작편(例作)
• 영단꽃꽂이 • 禪(zen) 꽃꽂이
• 다화(茶化)

이 책은 누구든지 보고 따라하기 쉽게 제작 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011-730-6845
011-280-0537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36-07-038816
예금주 : 정경란

참신한 불자님이나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태산 백원산 자락에 물과 공기와 울창한 자연 환경속에서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과 신심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함께 생활 하실 뜻이 계신분은 연락바랍니다.
현재 엘크사슴농장 경영, 양어장, 밤나무재배
사후에는 산소명당자리 제공할 예정
016-466-2470 / 농장(야)041)943-2756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강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http://eye88.hihome.com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사암鍼術학회 오행生食연구소 목당易학연구원
生食
역학 침술 풍수 육효 작명 생식
음양五行生食
TEL. (02) 969-3169
969-0603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상담하세요!!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www.speedunse.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 사례금 : 일백만원

사람을 찾습니다
50대 후반 중키에 벙거지를 쓰고 남루한 옷차림에 갈지자 걸음이며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귀가 들리지 않은 분임.
옥균아! 어머니 마저 돌아가시고 누나랑 형과 너 밖에 없는데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양보해주면 될걸가지고 그토록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말이냐. 너의 의식주는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루 빨리 돌아와다오.
형의 잘못은 너에게 깊이 사죄하고 용서를 빌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나집으로 속히 와 주기 바란다.
연락처 : 017-653-1077 / 011-9723-1043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갱년기 장애
· 고혈압, 고지혈증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원 81암자 중 하나 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산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 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종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으신 많은 **불자님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암주 보광당 지암 합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암스님)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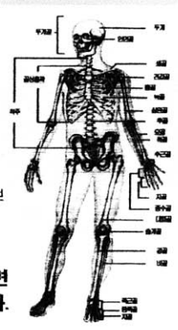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에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포천
- 법당 : 17평
- 요사 : 1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6천만원

- 위치 : 충남서산
- 법당 : 20평(3포)
- 요사 : 10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9억

- 위치 : 충남
- 법당, 요사 :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가액 : 2억 2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포항죽장하옥

- 편션 별장 같은 요사와 법당
- 산세 수려함
- 대지 200평, 전 500평
- 국유지 2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일월산 자락
- 부지 : 총2330평(7필지)
- 계곡안 : 조용히 수행하실분, 물 풍부
- 잣나무 20년생 삼백여그루 자작나무 100그루 포함
- 평당 : 1만8천원

054)674-0097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4층(40평)
- 방 2개, 주방(단독주차)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특징 : 주변 주택 및 APT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436-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부지 : 900평
- 법당 : 33평
- 요사 : 60평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 대지 및 임야 20,500평
- 건물 : 대웅전,극락전,요사채3동 및 다수(연못2곳,석탑,불상등)
- 특징 : 1. 조경수려 2. 예산시내와 인접하여 교통매우편리
- 가액 : 35억
- 실소유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433-4525
011-422-2909
011-9883-0008 주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 가액 : 2억(절충가능)

033)766-0057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 용왕단
- 가액 : 3억1천만원 (융자 4천포함)

011-785-5670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묵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지 리 산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진주 50분거리
- 해발 700미터, 16,500여평 부지
- 법당, 주택3동, 황토집(빼치카, 통유리) 전망 웅장, 맥반석 계곡, 동남향 명당
- 선원, 기도원 적합, 차량 진입가
- 가액 : 4억 2000만원

011-9136-1314

사 찰 안 내

[사찰터]

- 위치 : 경기 분당
- 부지 : 950평
- 양도가 : 10억
- 산세 및 교통좋은 절터임

- 위치 : 충남논산
- 부지 : 7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80평(2동)
- 양도가 : 3억 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2층 법당 45평(종무실, 공양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연등 1 천개, 닷집 단청필
-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암자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내
- 대지: 470평, 건물 110평 통나무집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3층 선방 30평
- 소나무 조경완벽, 정원내 생수 연못 및 다도 정자유
-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않는 맑은 계곡이 있음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도로포장 완벽
- 가액: 2억 2천만원 (총 투자금액 4억 4천만원)

011-509-01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 40평(주차 8대)
- 가액 : 9천만원

011-9802-313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 47-5
- 대지 11400평, 법당 25평,
- 목조건물, 요사 2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리 소재
- 대지 200평, 건물, 요사채 35평 임법당 25평, 임산신각 3평, 스님방 11평
- 시설 : 삼존불, 신중, 영가단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31)631-1325/011-9240-13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소재
- 법당 : 40평(목조,단청)
- 요사 : 70평(1,2층)
- 산신각 : 3평
- 가액 : 3억 8천만원(전세가능)
- 특징 : 뒤는산이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통도심 사찰임

- 위치 : 경남 사천군 소재
- 부지 : 약 10,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2동 50평
- 산신각 : 3평
- 가액 : 3억9천만원
- 특징 : 유서깊은 도량으로 기도정진하기에 좋습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5월23일 조계사 앞 불교문화마당에서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웰빙전통사찰청국장은 국산콩(대두100%)을 유기농 볏짚에 띄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무공해 청국장이며, 수행정진의 기운이 듬뿍 배어 있어 맛이 순하고 드시기 편합니다. 꼭! 동참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고 온 생명이 건강해지고 후복 해지길 발원합니다. (택배도 가능함)

▮효 과 : 청국장은 혈전(피떡)을 녹여 피를 맑게 하고,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켜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으며, 항암물질(사포닌), 레시틴, 핵산, 셀레늄 등 생리 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두뇌 발달 등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악성변비는 매끼 2수저씩 7일이면 큰 효과를 봅니다.
(D대학의 쥐 실험 결과 메주가루를 먹은 쥐의 두뇌가 170% 더 좋아짐.)

청국장(분말,환,찌개용,무염생청국장)주문 받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 100% 순 우리콩(대두)
메주 매년 1~2월 판매.

※ 연락 하실 곳 : 금강경독송회 010-2227-1250
서울 02-742-0172/포항 054-261-2231/부산 051-514-3566/대구053-425-3063/대전 042-862-8638/울산 052-245-0337/수원031-253-2677/강릉033-644-9009/뉴욕 718-539-9108/LA 562-407-10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역앞 초량2동
- 3층법당 공양간 대중방 주지실 법당 종무실
- 삼존불 후불탱화 70평 산중탱화 104위 70평 산신탱화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51)466-7237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 찰 안 내 [토굴]

- 위치 : 부산근교
- 대지 : 60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5평
- 가 액 : 3억5천

※부산 울산 중간지점 깨끗한 신축사찰

- 위치 : 천성산
- 대지 : 290평
- 주택 : 30평
- 가 액 : 2억

※멋진 계곡있는 별장 부산에서 30분거리

부산 영남지방 풍수천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50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도심속 암자)
- 현재 운영중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1-9848-3178

비구니 스님 선원 분양안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금선사 내 여래선원 3층건물 24세대 (1세대 17평)
- 준공검사 완료. 현재 입주가능
- 가액 : 17평 5,500만원(1층, 3층) 17평 5,700만원(2층)
- 연락처 :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011-538-3879 / 054)772-7171

사 찰 안 내

- 경남 마산시 화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부지, 대웅전 31평, 목조, 상포, 오포, 금단청 필 명부전 10평, 단청 필, 요사 80평, 방 10칸 주방 2개, 거실 주지실 10평, 기타 창고 약 6평, 주차장 100평정도
- 가액 : 9억(건물완공 약 7년)

※ 소개인 사절함

055)294-4889 / 011-554-0102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 50평(2층건물 2층) 주방, 화장실
- 법당 : 20~30평
- 시설비 : 1500만원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

016-640-81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울산시내최요지
- 평수 : 30평, 3층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이나 인연되는 스님께는 조금만 받고 드림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2)245-6689

토 굴 안 내

- 위치: 중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041)753-8137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시장
- 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 (절충)
- 도심포교에 뜻 있는 분

016-424-0500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지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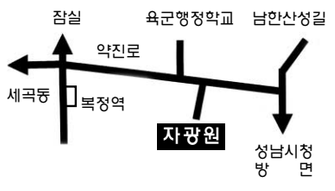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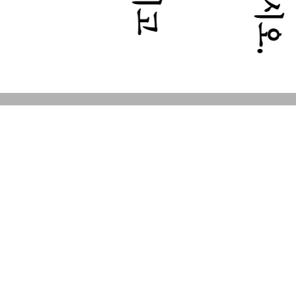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 한생각이 우주법계에 직결돼 있다!

여러분! 이 여름 나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덥고 추운 것을 놓으라고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여자 남자, 동서남북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공부 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따라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더 병고가 많은 거 같고, 요사이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게 많은가 하면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어디가 깨졌다거나 이러한 문제라면 병원엘 아주 재깍 가야 하겠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가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일이죠.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가서 해봤던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구태여 몇 달 더 살면 뭘 하고 덜 살면 뭘 하나.' 하는 그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에 맡겨 놓는 데에 묘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나가는 데도 고통이 많은데, 병고에 휘달리고 또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휘달리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휘달리고 사람 살 길이 참, 얼마나 천차만별로 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름이 위대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고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더욱 더 큰 괴로움이 있는 집들이 허다 많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아집과 아상과 또는 욕심과 착, 이런 거를 다 버리신다면, 그러고도 놓고 맡겨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밝게 한마음의 등이 켜지게끔 한다면, 자녀들도 이탈을 안 할 것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놓는 그 새싹들도 역시 뿌리가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발 한발 실천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생각 내서 악으로 가느냐 또는 한생각 잘 해서 선으로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그 입력된 사실과,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점을 여러분한테 수차적으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명이니 팔자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그건 운명이야. 죽는 것도 운명!" 이러죠. 그러나 그 운명이라는, 팔자라는 그 말이 말입니다. 어쳐구니없이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당하는 것을 그냥 위안이라도 할 양으로 "그게 운명이야!" 하는 거지, 그 운명이라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다 붙어 있답니까? 누가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닌데 다가 우리의 마음으로써 구성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인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어서 광력이나 전력 · 자력 · 풍신력이 바로 재료로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능히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미리 말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이탈을 하고 또 가정에서 접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감옥 아닌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배우시지만,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조절하고 이 세상을 조절하고 평화 문제 또는 남북통일 문제와 수많은 청소년들 문제를 조절하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을 조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하게, 마음의 등불을 켜 준다면 우리는 모두를 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도 아주 새 빛으로서 역력하게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앞에 아마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입 걸러 두 입 건너, 한생각에 바로, 여러분 한생각이 우주 법계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딴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우주간 법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즈음 인구가 너무 많이 팽창됨으로써 생기는 병들, 우리 마음들이 산란함으로써 그 혼백, 즉 영(靈)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균과 영계성이 너무도 많이 꽉 찼다고나 할까요? 그럼으로써 알지 못하는 병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빈 까닭에 그저 빈집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지구는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다면 여러분의 한생각에 우주 법계를 올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걸 보통 마음 공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할 때에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거나 또는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달마 대사 같은 사람들,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정도로 지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가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그 점,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 지구라는 혹성도 혹성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조절해나가는 일, 세계평화도 바로 우리 마음의 조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고 당장 부딪치는 자원 문제, 즉 말하자면 인구가 팽창됨으로써 우리 지구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바로 인구의 팽창도 여러분의 마음의 조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모두 한마음으로써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간 법계라고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에 맡겨 놓는 데 묘법이 있어

그러면 불(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라는 것은 그대로 영원히 변함없이 흘러 도는 불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자기의, 자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불성이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기에 우리 마음들이 자전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법계의 법바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서 벗어나서 법바퀴를, 우주 전체 법계를 두루 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어 과학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실 겁니다. 물론 과학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부처님 당시에 말씀해 놓으신 거나 지금 우리가 하고 가는 거나 증명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또는 나라를 이뤄서 정치도 하고 모두를 하고 가시는데,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 있어야만 용기가 나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충만하게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예 그냥 여건이 주어지지 않죠. 그리고 힘도 빠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첫째는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을, 즉 내 몸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할 것. 둘째, 요리를 한다면 바깥으로 남을 이익하게 전부 조절할 것. 셋째, 우리가 마음이 충만하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이 모두가 내가 돼서, 즉 가고 옴이 없이 나툼으로써 바로 내가 되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평화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과 더불어 이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도 조절할 수가 있죠.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 마음공부 하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보고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꿰뚫어본다 해도 부처님께선 도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집어먹을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도지, 어찌 보기만 하는데 도라고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가고 올 수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또는 남의 속을 빤히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다고 말할 건덕지도 못 되느니라. 즉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실천을 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써, 아집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써, 또 관습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린 둥글어 내놓고 싫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죠, 첫째. 그것이 역시 내가 아님이 없는, 내 발 아님이 없는 평발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서도 아시겠죠. 발이 밋밋하고 평등해서 평발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벌레의 발 하나라도 내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겠죠.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 써먹을 것인가?' 또는 '마음공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나 나으면 고만이지.' 이런 정도로만 공부를 하신다면 병 자체도 못 고치거니와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다 뭐다 하지마는 원자에서 그렇게 입자가 많아서 분자로 화(化)해서 수없이 대기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더라도 잘 생각해두십시오.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지만 그건 설 알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안다면 아는 것이 약이지 어째 모르는 것이 약이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약이겠죠. 알고 모르는 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모르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팔자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죄는 없습니다. 불을 자리도 없고 운명도 팔자도 불을 자리 없습니다. 이거 엉터리로 주워 모아서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체계를 세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값비싼 건 줄 몰랐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마음공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물리가 터져서 우주간 법계와 더불어 개미 한 마리도 따로 없이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보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별성이 얼마나 많은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는 참, 나라마다 조절할 수 있고 "몇이냐? 몇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별성이나 혹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혹성만 하더라도 지금 아홉 개니 열 개니 이렇게 따로 태양을 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이 살고 움죽거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 젊었을 때 얘깁니다. 6 · 25때 접시비행기를 봤습니다. 그때는 여기서도 봤다 저기서도 봤다 야단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내려다보이는,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데까지 앉은 걸 봤습니다. 여자로 보이는데 여자 하나를 들쑥 안더니만 그리로 태우고선, 그 양쪽에 모두 고슴도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얼마 크지도 않은 것이 밑으로다가 훨컥 뭐가 내려오니까 그냥 그리로 머리만 이렇게 수그리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똑똑히 저 아래 틈에서 봤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야휴! 지금 싸움이 벌어졌으니 저런 비행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영 몰랐습니다. 그러곤 그냥 가까이 얕게 떠서 반짝반짝하면서 자유자재하는데 '야! 저런 비행기가 있으니 우리가 질 수 밖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생명이 없고 차서 생명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 하시지마는 우리 불종(佛種)을, 참 '선의 불종' 이 자체는 이 '악의 불종'의 무리를 없애기 위함이요, 또는 '악의 불종'을 없앰으로써 우리 각 금성이나 토성 같은 데도 생명의 존재가 살 수 있게, 움죽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넓히면 크고 좁히면 작고, 고무줄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무줄 같은 마음을 좁혀 우리가 계발해서, 정신계로 발전을 해서 계발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악의 종'에 '선의 종'이 딱 거기에 입력이 된다면, 그것이 스스로서 착해지고 그 모습을 아주 밝게, 자력과 광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믿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믿어지게끔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증명되려면 한 백 년 거리는 두어야죠.

그러나 그 작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악종, 잠들어 있는 악종을 우리가 바로 선종으로 깨닫게 해줘야만이 그것을, 말하자면 모든 얽은 조건이나 뜨거운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증명도 안 되거니와 그러나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자동적인 끝간 데 없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화합을 하고 모두의 마음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룩해야 한다는 문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첫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쁘게 될 일이 없죠.

그때에 접시비행기를 볼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생각을 하니까 '아, 저런 사람은, 저런 비행기를 움죽거리는 사람들은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우리들이 법접을 못하게끔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에 자원이 부족해지고 능력이 손상되고, 정신을 뺏기고 이러는 수가 많습니다. 혼을 뺏기는 수도 많고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집주인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세계에 혼을 악으로 뺏길 수도 있죠. 선은 빼앗아가고 빼앗아오고 하는 것 없이 여러분에게 성능을 더 넣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악으로써 넣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혼을 뺏기 때문입니다. 악으로써 존재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며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태양이 끼고 돌 수 있는 그 별성들은, 그 생명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한 마음 주인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병고를 앓고 있는 사람마저도 해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해탈고, 어떠한 요건에 대해서든가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죠.

서산 대사는 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겠습니까? 괜히 새를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공부시키느라고 학인들을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계란을 거꾸로 쌓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데 계란을 쌓고, 보이는 데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생각에 지금 우주를 한꺼번에 보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도 아니 되죠. 우주복을 입고 지금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많은 과학자들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쓰고 다녔지마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하고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쪽에만 가 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도 만약에 저 북극이나 남극에 침투했다고 봅시다. 사람이 살아 있다고, 산다고, 생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지구 안에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극을 따라서 해안을 쫓아서 섬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요가를 한다 또 나는 명상을 한다, 또 단전을 한다 이러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몸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데 뭐가 끝간 데 없이 남겠습니까? 내가 끝간 데 없는 도리

☞18면으로 계속

내가 집어먹을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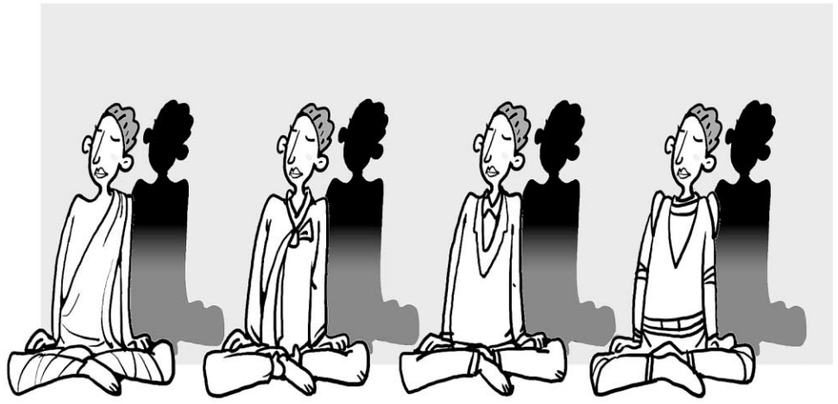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7면에서 계속

를 체득한 뒤에야 요가는 요가대로, 좌선은 좌선대로, 명상은 명상대로 내가 서려면 서고 앉으려면 앉는 거지 그게 무슨 이름이 주어졌고 이름이 박혀 있습니까? 이 몸이라는 건 사대로 흩어지면 그뿐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후일에 내가 만약에 아니, 나 말고라도 말입니다. 역대 조사들이 사대가 흩어졌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역시도 그렇고요. 요 우물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바다로 나갑시다. 바다에 얼마나 생명들이 많은가.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도 '물 밑에,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데 있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를 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얼음이 언다' 하는 것도 더운 김과 찬 김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바로 도전이다, 그리고 작업이다, 이런다면 그 얼음 하나도, 파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차차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소중히 알고 열심히 하신다면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서 해결하게, 아마 그 마음이 응해주실 겁니다. 가고 옴이 없이 말입니다. 하는 사이 없이 하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자유자재권을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아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선사들에게 있었던 얘기니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기는 다 아시는데 행이 없다면 그건 아나마나 아닙니까? 행이 문제지 말이 문제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때에, 아마 중국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학인들이 너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당이니 서당이니 하고 만들어 놓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은 남전 스님이 왁자지끌해서 내다보니까 아, 동당 고양이다 서당 고양이다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곤 온통 학인들이 야단법석이 났거든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가만히 보다가 하도 괴이하고 그 공부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서 보다 못해 고양이를 가서 덥석 집었습니다. 덥석 집어들고서 "너희들이 한마디 한다면 이게 두 동강 나지 않을 것이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다면 두 동강이가 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쥐 죽은 듯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남전 스님은 약속은 해놓고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뭔 꼴이 됩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그냥 두 동강이를 냈죠. 그랬는데 외출했던 조주 스님이 저녁에 들어오니까 남전 스님이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주 스님은 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신발 한 짝만 머리 위에다 얹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것이 옳겠습니까, 살려둬야 옳겠습니까?' 하는 것이 첫째 관문이요. '그럼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신발 한 짝을 머리 위에 이고선 휙 나가버렸느냐.'는 그게 둘째 관문이요. 셋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하고 아주 첫 구절에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남전 스님은 고양이를 삽시간에 그냥 살생을 해버렸느냐?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라는 관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 말입니다. 말은 함이 없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야 하겠고, 흉내를 내서는 절대 안 되고, 내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온다면 함이 없이 하고 작용으로써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모르고서 남이, 전자에 종사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서 그것을 했다면, 그거는 큰 업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모르게 하나 훔쳤다고 해서 뭐 알겠느냐 이러겠지만, 이거는 컴퓨터에 입력이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되고,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고, 입력이 돼서 그냥 고대로 나오는 거죠. 판사가 어딨습니까? 자기 속에 판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니,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게 공생으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가고 공체로 돌아가고 공식하고 돌아가는데 뭐가 어디 딴데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살다 가기는 마찬가지인데
뭐이 그렇게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아는 걸로만 알아서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나 정신병자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이 공부 아니면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천 분이 오셔도 그건 해결 못합니다. 과거도 현실이고, 어저께도 과거니깐요. 남을 우습게 알고, 남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죽이거나, 죽여서 그저 내 살 궁리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을 내고, 이러한 문제들을 갖는다면 내 앞에 닥친 것을, 닥쳐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한 거고, 거기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느냐. 이거는 컴컴하기만 해도, 컴컴해서 저 산 속에만 들어가도 벌벌벌벌 떠는 데 아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이판사판이지, 그깟 놈의 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살다 가기는 마찬가지인데 뭐이 그렇게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에 그랬죠. 어려서 참 많은 세월을 부모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일제 시대의 일입니다, 딴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집을 가니까 겁빵을 갖다가 우거지를 좀 썰어 놓고선 물은 흥덩그러하게 붓고는 솥에다 끓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그릇씩 끓여도 내 몫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먹는다면 어머니는 굶게끔 되어 있어요. 어머니밖에는 굶을 사람이 없거든,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나는 저기서 먹고 지금 바삐 들어가야 한다." 고하면서 되돌아 갔어요. 그 집에서는 배불리 먹고 산다고…. 가다가 고만 하루 종일 굶고 온지라, 너무 배가 고프니깐 길에서 쓰러졌죠. 쓰러지다보니까 어느 사람이 날 부축을 해서 그 움막집으로, 정말 부엌에는 거적을 해놓은 그런 집으로 가더니만 물에다 간장을 타서 한 사발을 주더군요. 그거를 먹고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 아픔과 그 모두를.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게 많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먹을 게 많으니까 상하는 것도 있고요. 맛없는 것도 많겠죠. 그때엔 정말 무청 하나를 생으로 씹어 먹어도 맛있었으니깐요. 사람의 입이라는 건 그렇게 이를 데 없이 간사한 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뭐이 그렇게 맛을 찾느냐?' 하는 생각도 어떤 때는 듭니다.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 속에서 눈물이 머금어 올라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재량대로 살겠지만, 그렇게 못나 떨어져서 그렇게 못나게 살았죠. 그러나 못났다고 해서 남의 거 훔치거나 더 먹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같이 불쌍하기 때문에, 항상 어떡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옛날에 중국에서 길을 떠나 인도로 공부하러 갈 때 소금 한 웅큼을 허리에다 차야만 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 한 웅큼씩 차고 가도 삼십 명이 가면 한 명 남을까 말까 했답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울었습니다. 전자의 종사(宗師)들이, 전자의 스님네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그 스님네들이 얼마나 가엾게도 그렇게 쓰러져갔을까 하는 생각에서 엉엉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문제가 생겼죠. 요런 웅덩샘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도, 배가 고플 때가 왜 그렇게 모두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그 물을 떠먹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마구니, 그냥 보잘것없는 게 비쳤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모습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이 왜 이렇게 험한가?' 하고선 생각을 하는 찰나에 말입니다, '그 또한 부처니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 또한 부처니라. 조성이 돼서 잘 꾸며 놓은 그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그 속에 진짜 부처가 또 있느니라. 그러니 부처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마구니 소굴도 들어가고 오간지옥도 들어가고, 남의 집 며느리로도 되고 남의 집 남편으로도 되고, 동생으로도 되고 아들로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짐승도 되고, 돼지도 되고 개도 되느니라. 그러니 어떤 것이 될 때 부처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둘도 없고, 둘도 없는 그것이 바로 그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나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아리송하듯이 '야! 어떻게 그렇게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곤 그냥 거기 앉아서 빠져들었죠.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 가지의 관문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예전의 종사들도 그렇게 해서 익었나 안 익었나 두들겨봤다는 얘기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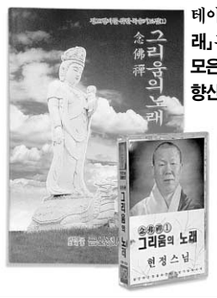
바다 깊은 물
얼은 것도 파도도 관계없이
도도히 흘러도니
청산의 푸른 잎 낙엽졌다 말 없이
돌무처 도리천에 연꽃 머리 위에 얹어
끌간 데 없이 걸어 도누나.
검은 구름 활짝 밝아지니
그 모두가 밝고 밝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른손 주먹으로 법상을 세 번 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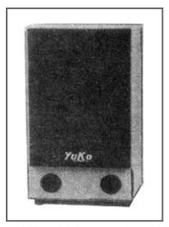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이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일 뿐입니다. 진짜는 그냥 우리가 목마르면 마실 수 있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똥을 잘 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이 소리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림 없이 소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7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정 스님의 念 佛 禪
그리움의 노래
백날을 하루같이 부처님이 그리워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빈도의 佛心을 담은 그 노래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열성을 보내고 있는 불자님들에게 부처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다시한번 「그리움의 노래」를 바칩니다.
아직까지 그리움의 노래를 만나지 못한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를 부탁 드립니다.

테이프 전면에 「그리움의 노래」후면에 「선근인연가」「부모은중가」「불전참회가」「회향산회가」등 주옥같은 법문이 염불송으로 녹음되어
테이프+책=5천원에
전화주문 받고 있습니다.
● 입금은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 (금산정사)
[2개이상 우송]
불교의 우리말화 실천도량
금 산 정 사
061-843-8822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지임 詩人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래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운 마음
그대 찾아 가고 싶어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퇴마승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불자 세상보기

배 광 식
서울대치의학과 교수

사막에 나무 심은 뜻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으로,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되는 황무지 바가누르 지역. 5월 21일부터 이곳에 대한항공 신입직원 102명이 3차에 걸쳐 13일간 나무 심기 활동에 나섰다. '대한항공 숲'이라 명명된 이 지역에, 한국과 몽골을 잇는 '우호와 희망의 나무'로 자랄 포플러 묘목 3천그루를 심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황사(黃砂) 예방을 위한 방풍림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와 몽고의 사막지역의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그 발원이다. 그 중 50% 정도가 편서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먼거리까지 수송되어 한국, 일본, 태평양(하와이 등) 등에 침적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인 서기 174년 음력 1월 신라에 "흙가루가 비처럼 떨어졌다"는 황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자주 나온다. 중앙아시아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1년에 3~4차례 오던 황사가 최근 20여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황사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국내에서는 황사경보체제를 갖추고, 국외로는 발원지에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나오는 황사현상에 대해,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황사현상의 인연과(因緣果)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180만년 전에 형성된 황토지대인 뢰스(loess)층을 인(因)으로 바람을 연(緣)으로 하여 황사(黃砂)의 과(果)가 생긴다.

이렇게 인연과를 확연히 알면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인(因)을 없애거나, 연(緣)을 바꾸고, 지엽적으로는 과(果)를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황사경보가 지엽적 대책이라면, 발원지인 황토지대에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부처님께서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법계연기(法界緣起)'를 말씀하셨고, '북경의 가녀린 한 나비의 가벼운 날개짓이 태평양의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가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증(心證)을 가지고 있다.

황사현상의 인연과를 모르는 신라 사람이라면 '몽골에 가서 나무 심는 것과 우리나라의 황사방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의 의의는 부처님께서 보리수하를 떠나, 5비구에게 사성제(四聖諦) 곧 고집멸도(苦集滅道)를 밝힌 것이다.

사성제 가운데 '고'와 '집'은 세간의 유전연기(流轉緣起)에 따른 인과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속한 세상인 삼계육취(三界六趣)는 모두 고통으로서 어리석음(迷)의 결과(果)라는 고제(苦諦), 이 고보(苦報)의 원인은 탐(貪)과 진(嗔) 등의 번뇌와 선악의 모든 행위로서 이들이 세상의 고통을 일으키므로(集起) 어리석음(迷)의 원인이라는 집제(集諦)가 그것이다.

'멸'과 '도'는 출세간의 환멸연기(還滅緣起)에 따른 인과이다. 즉 미혹을 벗어나서 깨달은(悟) 과(果)인 생사의 고통을 여읜 열반인 멸제, 이 열반에 통하는 팔정도는 깨달음의 인이라는 도제가 그것이다.

인과의 순서대로라면 집고도멸인데, 왜 고집멸도로 과를 인 앞에 세웠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는 보기 쉽고 인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과를 먼저 보여 이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한 후, 그 원인을 끊어 없애게 함이며, 또는 열반의 묘한 과(果)를 먼저 들어 원하게 한 후 그 길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황사도 마찬가지다. 인과를 알았으니 대책을 세울 일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교환경운동의 내일

한국불교는 환경보존을 위한 명분과 실리의 양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불교환경운동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불교환경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알다시피 불교환경활동은 이 시대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기본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 그 전략으로서는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한 불교적 환경관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길이고, 전술은 그 것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으로서 그 밑바탕은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지속성과 연대감을 갖는 활동으로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내실화와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불교환경활동은 불교적 장점을 살려가는 활동이라기 보다는 관심있는 일부 사부대중만의 잔치였거나, 일과성의 행사로 치우친 점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불교환경활동에 대한 근원적인 정체성에 대한 모색도 없이 즉각적인 대응으로 사안에 치중하다보니 실패시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그러들거나, 단순한 일회성의 행사만으로 끝나게 되는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터전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이 시대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해야 하는 불교환경활동은 일회성활동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자들 모두의 의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삶이고, 지금의 이 자리를 정토(淨土)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불교환경활동을 재검검해 보면서 불교계의 환경활동의 조직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부족하고, 미비하더라도 이 시대 새로운 실천활동으로서 다시금 사부대중의 관심과 책임지는 자세로 지속적인 활동이 계속되기를 고대하게 된다.

■ 이병인(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민의 눈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벼슬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불반니항경〉

"저 의원은 오늘도 졸고 있네."

지난 5월 24일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국회방송(NATV)이 개국했다.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전달돼 국민이 국회활동을 평가하는 '안방 감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회방송은 본회의와 청문회 등 국회 내 거의 모든 의사현장을 지역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 하루 16시간 동안 생중계한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엄한 시어머니'를 두게 된 셈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방송 개국으로 의원들의 회의 불참 및 부적절한 발언, 욕설, 폭력 등 그간 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각종 구태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이권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신임과 존경을 얻게 되고, 의정활동은 도외시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어 국회 재진입에 성공했던 의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비리와 폭력, 공권력 남용 등으로 얼룩진 국회를 수 없이 접해왔던 국민들로서는 자연히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게 된다.

<증일아함경>에서는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국회방송이 '국회를 안방으로, 국민을 국회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곳'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여수령(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불미전'의 '현대 부문' 제외에 대해



오경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전통과 현대 '동거' 불편하면 분리 공모를…

불교미술전은 이제까지 전통과 현대 불교미술로 나누어 공모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대 불교미술 분야를 폐지하고, 전통 불교미술만을 공모한다고 한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에 아연할 뿐이다. 실상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미술은 시대를 드러내는 예술이다. 2000년대를 사는 예술가는 2000년의 예술을 만드는 것이지, 1000년전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의 미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종교미술이 전통을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전통은 오늘을 위한 전통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미술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만 있고 현재가 부재한 미술은 불가능하다. 오늘의 미술은 오늘을 반영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교미술은 이 시대가 투영된 불교미술이어야 한다. 전통 불교미술만이 진정한 불교미술이란 생각은 큰 잘못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변화 없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 전통만의 고집은 변화의 거부이고 정체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불미전은 이 세대의 불교미술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통만 있는 미술은 박물관의 몫이다. 그러나 그간 불교미술전을 회고해보면 전통 불교미술과 현대 불교미술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통 불교미술 분야는 유연성이 적어 경직됨을 느꼈고, 현대 불교미술은 질과 양면에서 크게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작가들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불교미술을 기대해왔을 뿐이다.

전통과 현대의 불편한 공존은 이러한 간극의 커다란 차이에서 왔다. 전통 불교미술의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현대 불교미술 분야는 그 내용이나 참여작가의 양에 있어 빈약함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불교미전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하여 현대 불교미술 분야를 없앤다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며, 이러한 중대한 일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어야 했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모두 부처로 표현한 민화에서 우리는 그 시대 민중의식을 읽을 수 있다. 박생광의 강렬한 색채와 구도에서 우리 전통의 성공적 수용을 볼 수 있다. 많은 현대작가의 작품에서 불교적 세계를 발견한다.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 많은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근현대에 있어서 이중섭 · 장욱진의 작품에서, 유경채, 하인두의 추상회화에서도 불교적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 전성우의 만다라, 이왈종의 중도세계, 윤광조의 도자기에서 우리는 깊은 불교적 친연성을 느낀다.

종교미술 측면에서 일부 성당의 건축, 조각, 스테인드그라스의 활발한 현대적 수용을 부러워하며, 불교사찰이 더 적극적으로 전통으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오늘날 여러 종교미술 가운데 불교미술의 현대적 수용이 부족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불교미술전에서 전통 불교미술과 현대 불교미술의 동거가 불편하다면, 따로 분리하여 전통 불교미술전과 현대 불교미술전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불미전이 현대 불교미술 분야를 폐지하고 전통 불교미술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챙기셨습니까?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2004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출고정가 15만 7천원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화제의 신발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룸비니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지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떠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K씨도 골프화 대신 룸비니를 신고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누벅을 사용했으며 밀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 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룸비니 선물로 부모님 건강장수 기원

갑신년 名品특집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별사은품 증정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관 해도 도망치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는 성구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 불자님께 순금도금한 삼고 금강저(사진)를 특별증정한다.

왜! 삼고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으 지혜를 얻어 승리하게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주는 봄경에 입각한 수호신인 삼고금강저를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하는 분께 평생 지니고 다닐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축원불공을 마치고 특별증정 한다. 여성께는 핸드백 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노인과 어린이는 주머니속이 항상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최고급으로 제작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 향로

'소원성취 향로'화제집중

99% 청동으로 만든 국보급 명작



관음예술원

불경에 입각한 성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회제가 되고 있다. 최고급 청동으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 여의주 백연화 수진언 향로"는 불경에 입각해 영험으로 저작된 국내 향로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이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말하는 것으로 번영과 소원성취의 바람을 담고 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수진언은 그동안 큰 스님들을 통해 그림으로 그려져 불자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긴급비방으로 전해져 왔다. 사업이 어려울 때의 향로의 비방은 동쪽,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자녀를 기다리는 임태의 비방은 북쪽, 승진과 취업의 비방은 서쪽, 병고 회복의 비방은 북쪽, 개업을 준비중인 성공 사업기원의 비방은 동쪽, 인연의 짝을 찾는 비방은 동쪽, 법적 문제 승소의 비방은 서쪽, 가정의 우기 또는 개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등 비방에 따라 향로를 놓고 진언, **"올 바아라 바다리, 올 바아라 미라야 사바하."**를 아침마다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성심으로 지혜를 얻으며 가지가지 보배 재물이 들어오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워 진다 했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도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 되고 있다. **관세음보살 수진언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다. 두께 27kg,높이22cm,넓이17cm 가격295,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들려 절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편치 않는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절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검정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동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계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곡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자비의 신발을 보시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제일가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씨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된다고 했다.

120년만에 찾아온 갑신년이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 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을 것이며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룸비니는 (주)룸비니에서 스님의 승복 색상이 맞춰 품위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대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에도 피곤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초운겨울에는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새상품

살빼는 신발 스피드 인기

독일 뮌헨 다이어트 기능대회 대상수상



착지시 뒷굽이 15° 공중에 떠있는 과학적인 신발

'살빼는 신발' 국내외 인기폭발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에서 발명특허를 받고 독일 뮌헨 다이어트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살빼는 다이어트신발, 스타핍드"가 국내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신으면 살이 빠지는 신발"을 개발한 부산 삼덕통상(주)는 초기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지에 전량을 수출, 단기간에 폭팔적인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기능성 신발 메이커로 부상했다. 특히 독일에는 이 신발이 비만의료기로 수출되고 있다.

래외에서 성공을 거둔 삼덕통상측이 이제 국내시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것이다.

이 신발을 신고 30분만 걷거나 뛰어도 3시간 이상의 운동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 신발은 하치와 허리를 날씬하고 튼튼하게 단련시키거나 허리를 반듯하게 균형잡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도입됐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 고민하는 이나 다리에 힘이 없고 복부비만으로 고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의 이용을 권하고 있다. 수출의 날 대통령상과 산업평화상도 받은 스타핍드 신발은 "마라톤 선수들이 발의 앞부분으로만 뛴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며 "뒷굽을 앞에 까치발식 걸음으로 복부와 다리에 힘을 쏠도록 한다"는 원리를 원용한것이다. (080-555-3030)

부산=이영자 기자 yj3119@hot.co.kr

하루1시간 운동으로 월 2kg빠져





금강저 건강밸트

부처님의 불력으로 남자들의 승리와 안전의 수호신

혐한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 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 밸트를 제작하여 남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부모님께 건강의 선물!
남편에게 승리의 선물!
학생에게 지혜의 선물!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불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 한것이 돋보여 직장인은 물론 중, 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 등 믿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부처님 福지갑

룸비니 福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佛力!



120년 만에 온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흘려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불려 괴질과 풍토병이 만연하여 氣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학적으로 볼때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방황하지만 갑신년 후반기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옛부터 갑신년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같다하여 화를 쫓고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위해 부처님 공양구 또는 법구를 집안에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 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금의 해라 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 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 지갑으로 들어으는 해로 120년만에 은 갑신년이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 성구 卍자를 지갑 정면에 넣고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 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으로 출시된지 1년동안 안되든 장가가 잘되고 어려운 사업이 풀리는 등 숫한 화제를 낳은 지갑이다.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 양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구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녀공용 반지갑은 55,000원, 여성용장지갑은95,000원에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 신청하면 보내준다.

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